

정책과제 2005-23

##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 발간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개최는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져 온 경향이 있는 신세대와 구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낸 함성은 민주화의 힘든 과정과 1990년대 말 경제 위기를 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로 거듭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을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신세대는 ‘붉은 악마’에서 나타나듯,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 민족의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이나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는 듯한 미성숙한 세대로서의 모습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신세대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며, 그러한 세계를 가진 그들이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와 달리 제주 여성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여 왔습니다. 제주도의 신세대 여성은 제주 여성이면서 새로운 세대로서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화와 분권화가 정착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 여성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제주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고 부 언

# 목 차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II. 이론적 배경

- 1. 신세대의 등장과 개념 .....5
- 2. 시대별 신세대 .....8
- 3. 신세대의 의식구조 .....10
- 4. 성역할의 변화 .....15

## III. 조사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30
- 2. 조사도구 .....30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30
- 4. 설문지의 제한점 .....30

## IV. 실증분석

- 1. 조사개요 .....32
- 2. 가정부문 .....34
- 3. 문화·여가 부문 .....43
- 4. 정치·경제·사회 부문 .....49
- 5. 일반 사회 의식 .....58

## V. 결론 및 제언

- 1. 부문별 조사결과 .....65

2. 제주도 신세대 여성을 위한 정책 제언 .....	70
참고문헌 .....	76
부록 .....	77

## 표목차

<표 1> 세대별 특징 .....	10
<표 2>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 비교 .....	12
<표 3> 한국·미국·일본 신세대 특징비교 .....	13
<표 4> 세 원시사회 성역할 구분 .....	17
<표 5> 제주도 성 및 연령계층별 인구 및 비율 .....	20
<표 6> 제주도 성별 평균연령 .....	20
<표 7> 평균교육연수 .....	22
<표 8> 성별진학률 .....	22
<표 9>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 .....	23
<표10-1>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인문계·사회계·자연계) .....	23
<표10-2>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의약계·예체계·사범계) .....	24
<표11> 성별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	26
<표12> 교육 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	27
<표13>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 .....	28
<표14>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2002) .....	28
<표15>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수 .....	29
<표16>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29
<표17>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33
<표18> 이성/배우자의 중요한 조건 .....	35
<표19> 혼전관계 가능 여부 .....	36
<표20> 결혼이 필수는 아님 .....	36
<표21> 남편/아버지 의사결정 우선 여부 .....	37
<표22> 결혼 후 자녀출산 .....	38
<표23> 결혼 후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 .....	39
<표24> 자녀출산을 위한 상황 .....	40
<표25> 이상적인 자녀의 수 .....	41
<표26> 아들선호 여부 .....	41
<표27>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	42
<표28> 인터넷 사용여부 .....	43
<표29>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	44
<표30>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44
<표31> 인터넷 이용목적 .....	45
<표32> 여가활동 여부 .....	46
<표33>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46

<표34> 여가활동 내용 .....	47
<표35> 개인별 여가활동 현황 .....	48
<표36> 월 평균 독서량 .....	48
<표37> 가장 선호하는 도서부문 .....	49
<표38>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확대 필요성 .....	50
<표39> 학교교육이 양성평등적인지의 여부 .....	50
<표40> 남성의 군 입대에 대한 여성의 대체활동 필요성 .....	51
<표41> 종중재산 처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감 .....	51
<표42> 제주도에서 여성취업의 어려움 .....	52
<표43> 제주도에서 여성취업 증진을 위한 방안 .....	53
<표44> 제주도에서 전문직 여성이 적은 이유 .....	53
<표45> 현재 여성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	54
<표46> 정치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	55
<표47>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정도 .....	56
<표48> 제주도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에 대한 이유 .....	57
<표49> 육지부 여성보다 제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의 여부 .....	57
<표50> 제주 사람의 표현에 대한 응답 .....	59
<표51>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부문 .....	60
<표52> 제주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 .....	61
<표53> 제주도의 경제수준에 대한 긍정적 전망 .....	62
<표54>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 .....	62
<표55> 제주도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63
<표56> 육지부와 제주 신여성의 배우자선호·결혼·자녀·의식비교 .....	65

## 그림목차

<그림1> 신세대 의식구조와 가치관 .....	15
<그림2> 결혼여부 .....	37
<그림3> 남편/아버지의 의사결정 우선 여부 .....	38
<그림4> 출산하지 않는 이유 .....	39
<그림5>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	42
<그림6> 여성의 정치참여의사 정도 .....	55
<그림7> 육지부와 비교한 제주여성의 지위 .....	58
<그림8> 제주사람에 대한 평가 .....	60
<그림9> 제주도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64
<그림10> 신세대 의식구조와 가치관과 정책반영 개념도 .....	70
<그림11> 건강가정 지원센터 중심의 가정지원체계 .....	71
<그림12> 문화·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도식도 .....	72
<그림13> 여성의 정치 훈련 단계 도식도 .....	73
<그림14> 여성복지 개념도 .....	74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하여 21세기는 물질적·사회적 제반 환경의 변화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국가 목표가 되었던 경제개발과 산업화는 달성되었으며, 국민 생활여건은 선진국화 되었다. 그와 더불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소수계층에게 국한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접근성은 날로 용이해져 가고 있다. 사회 각 부분의 자율화·다원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월드컵개최 스포츠 강국을 꺾고 4강에 진입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세계의 이목은 거리에 몰려나와 함께 응원하던 ‘붉은 악마’에게 집중되었다. 잠재된 자신들을 드러낸 신세대들의 대규모 집합 행동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을 동참시키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뜨거운 열정을 표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역동적인 세대로 인식되었다.

지금까지 ‘신세대’는 구세대/기성세대와는 구분된 세대로 서로 반목하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객체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신세대 그 자체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신세대’ 혹은 ‘신세대 문화’는 몇몇 소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그 영역에 속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속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특히 신세대는 ‘자유로운 의식’이 특징이어서 대규모적인 집단문화로 형성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이어서, 학력 위주의 권위주의적 사회체제, 입시를 통한 성공 지향적인 교육환경,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문화 등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추종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자유로운 문화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그들에게 가정과 사회 학교는 정신적 압력을 가하는 곳이어서 사회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세대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자유는 매우 위험하고 통제하기 힘든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신세대는 소비지향적으로 인식된다. 대중매체는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왜곡하여 소비와 파격적인 소수의 변종 문화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신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기성세대로 편입하는 생애주기를 경험하게 된다. 즉 신세대는 생애주기에 있



어 기성세대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절제된 청소년기를 지나 억압에서 해방되는 일탈을 경험하는 세대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에 대한 이해부족은 신세대를 새로운 문화 주체로서 이해하기보다 갈등과 대립의 주체·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로 인식하여 왔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신세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20대 초반의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사실을 열거하며 지나친 흥미위주의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신세대들이 새로운 서구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 신세대를 유행을 양산하는 계층으로 인식하고 학문적인 규명 없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신세대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세대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인식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신세대 그들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한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는 집단과 그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 동시에 혼재하고 있어서 그들 스스로 신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학문적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세대 여성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제주도는 외지와 다른 사회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여성만의 독특한 배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세대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더욱이 세대차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바 연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신세대 여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제주사회의 중요한 성원이며, 동시에 사회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 신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다변성, 그리고 그들이 ‘무엇과 다름’이며, 그 ‘다름’의 원인과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구성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올바른 ‘신세대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신세대를 기존의 단절적, 소비적, 익명성이 강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정책의 수혜성을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신세대 제주 여성의 배경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과 신세대 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미래 제주사회의 생활을 결정지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제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62.6%가 경제활동에<sup>1)</sup> 참여하고 있으며, 가구주 부부의 경제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4)에 의하면 전국 평균 여자 48.9%, 남자 74.6%으로 제주

활동 상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4.7%로 조사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실정이다. 또한 제주여성은 “해녀<sup>2)</sup>” 이미지와 연결되어 ‘역척스러운 여성’, ‘강인한 여성’ 등 여성의 부드러움보다 강한 생존력을 지닌 생활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 역시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으로서 ‘해녀’의 수와 지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여성의 변화된 이미지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 수요자 중심의 시책과 사업을 제언한다. 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의 보편화, 그리고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양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벗어난 자치단체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적, 지역적 요구는 지역 정책의 수요자가 무엇을, 왜 원하는지와 같은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실제적인 시책과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반적인 여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제주 여성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무척이나 방대한 작업이며, 장기적인 연구 과정을 수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사회 변동의 중심 세대인 신세대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신세대 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5세 여성<sup>3)</sup>으로 한정하였다.

---

도는 여자 62.6%, 남자 79.4%로 전남의 55.7%보다 무려 6.9%가 높으며 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높은 시도에 속한다.

- 2) 해녀 이미지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식하고, 이를 제주도 여성의 이미지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여성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해녀 이미지와 더불어 제주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발굴하는 것은 여성의 다양한 삶을 인식시켜 주는 중요한 시도이다.
- 3) 신세대의 연령설정은 조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연령과 공유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사도 이러한 두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연령을 정하였다. 성인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입학과 무관하게 사회인으로 인식되

설문기간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이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 등 약 2주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등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

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생활내용이 매우 달라지므로 신세대의 시작연령을 19세로 설정하였다. 한편 1971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는 풍요로운 경제적 배경과 정보화 등 빠른 사회의 변화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경험하여, 전통과 현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는 35세 연령을 신세대의 마지막 연령으로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세대의 등장과 개념

신세대가 우리 나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경제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던 때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고, 그에 따라 신세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일본의 ‘新人類論’이 소개되면서 신세대에 대한 논의들이 학문영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우리의 언론이 사용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신세대와 구세대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지표는 물질적인 풍요와 결핍이다. 일본의 경우, 전쟁을 겪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겪은 단카이 세대<sup>4)</sup>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풍족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하였는데, 부모세대와 다른 생활행태를 드러내는 자녀세대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 궁핍을 경험한 부모가 제공한 물질적·경제적 풍요 등 튼튼한 재정을 배경으로 부담 없이 향유하고 즐기며, 남에게 해가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누렸으며, 자신들의 미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능력과 결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신세대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의 배경은 “더글라스 커플랜드”의 소설 「X-세대(X-Generation)」에서 새로운 신세대론이 처음 등장하면서였다. 특히 미국의 한 마케팅 전문가가 기업광고를 목적으로 신세대를 연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세대라는 용어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동방기획의 「아모레 트윈X<sup>5)</sup>」 화장품 TV광고가 신세대가 등장한 시초로 간주된다(한국일보, 1990:4월28일자). 그러나 여전히 ‘신세대’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이기 보다는 청년기의 독특한 문화로서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히피(hippie)」, 「여피(yuppie)」, 「X세대」 등 시대별로 특징을 통해 신세대를 바라보기도 한다.

신세대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세대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세대의 개념은 희랍어의 ‘새로이 출현하다(genos)’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 
- 4) 단카이(團塊) 세대는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의 소설 '단카이의 세대'(1976년)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1948년 전후 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등장한 베이비 붐 세대이다. 일본어로 뭉치,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 세대는 1948년을 전후한 폭발적인 출생률 증가 때 태어나 1960~70년대의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고도성장기에 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장년으로 일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이다.
- 5) 남성전용 화장품으로 광고의 차별성을 위한 전략으로 “신세대”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시간, 노화과정, 연령집단, 사회구조 등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인 세대 개념은 보통 30년의 시간단위로, 한 사회에 있어 특정한 문화와 이념이 형성되는 동질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즉, 특정기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기간에 생성되는 가치관과 이념이 함께 융해되어 있는 집단을 뜻한다.

이러한 세대에 대한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모델(life cycle model)과 사회적 상황 및 공통경험의 공유를 중시하는 경험모델 (experience model)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 밖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와 같이 가계 계승 차원, 인구학적인인 동시출생집단(age cohort)차원, 청소년세대나 대학생 세대와 같이 생애주기의 일정단계관점, 전후세대나 4·19세대 등 특정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칼 만하임은 세대 구분의 대표적인 학자로 그는 세대를 일반적 개념과 특수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적 개념에서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었다. 일반적 개념의 신세대는 20대 전후반 젊은 세대로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다’ 라는 말 등은 일반적인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시간적 개념에서 설명한 30년을 한 세대로 구분한다면 청소년세대, 청년세대, 중년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의 각 개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대간 이동이 경험된다.

이와는 달리 세대에 대한 특수적 개념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른다’의 ‘전후세대’, ‘30대 모래시계 세대는 20대 보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진보적이다’의 ‘386세대’, 그리고 ‘4.19세대’, ‘5.16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 자신들이 속한 시대 속에서 경험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세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상에서 보면 세대란 결국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서, 의식구조, 행위유형,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세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신세대를 정의하면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상이한 준거의 틀을 갖게 된다. 즉, 신세대는 구세대 또는 기성세대와 함께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나 존재하여 왔으며, 어느 특정시기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다. 또 생애주기의 모델에 따르면, 세대가 갖는 단선적인 시간 또는 연령의 변화로 인해 사회구조적 조건과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에 의해 각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과 구별되는 행동양식, 정서, 가치관, 규범, 신념, 이데올로기 등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세대’가 신세대를 규명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신세대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 ‘가난을 모르고, 소비문화에 물들어 있다’, ‘지적이기보다 감각적이다’, ‘문자적이기보다 이미지적이다’, ‘역제적이기보다 표현적이다’, ‘권위주의적이기보다 자유주의적이다’, ‘집단주의적이기보다 개인주의적이다’. ‘탈정치적이며, 전통적인 가치에 저항한다’. ‘육체적 성적 쾌락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개성이 강하

고 성취욕이 강하다' 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흔히 10대 후반부터 20대 및 30대 초반까지 생물학적 나이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사회질서와 다른 문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주체로 규정하기도 하며, 'X세대', '386세대', 'N세대', 'W세대6)', 'P세대7)', '웰빙족8)', '메트로섹슈얼족9)', '테크노섹슈얼족10)', '보보스족', '디지털노마드족11)' 등 신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새롭고 빠르게 다른 용어가 탄생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치성향, 소비성향 등 기존의 질서와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한편 신세대는 기존의 사회 상징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변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신세대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집단으로 대중매체에서는 하나의 소비코드로 인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20대와 30대 초반 세대는 그들 내부에서 문자세대와 영상세대로 구분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세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기성세대와 정치, 경제, 문화 등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몇 가지 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들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즉 1970년을 기점으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의 일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들은 정치적으로 1987년 6.29선언을 기점으로 민주화 투쟁과 그 여파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대학진학 연령에 도달하였다. 1970년 이전 세대들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유신·독재라는 국가 권력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그들이 속한 세대의 역사적 소명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는 이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민주화 토대 위에 세워진 자유로운 시민사회 속에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누리게 되었다.

둘째, 70년대 새마을 운동 등 '잘살아보세'의 구호 아래 실시된 성장지향적 적극적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국가 무역수지는 흑자를 달성하고 후진국에서 아시아의 신흥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신세대들은 가난을 모르고

- 
- 6) "W세대"는 월드컵세대로 한일 월드컵(Worldcup)에서 거리 응원의 모습으로 광장에 나타나 문화적 충격을 준 세대이다.
  - 7) "P세대"는 참여, 열정, 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Paradigm-shifter)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성장한 세대로 자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닌 세대이다.
  - 8) "웰빙족"은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한 삶보다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삶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 9) "메트로섹슈얼족(metrosexual)"은 도시에 살면서 패션과 트렌드를 읽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여성적 특성이 가미되어 웰빙, 건강, 스킨케어, 패션 등에 관심이 많은 남성을 지칭한다. 메트로섹슈얼과 반대되는 남성 개념은 위버섹슈얼이 있다.
  - 10) 테크노섹슈얼족으로 최신의 IT제품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을 지칭한다.
  - 11) "Digital Nomad족"은 휴대전화 PDA, 노트북 등으로 디지털로 무장한 현대인으로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디지털 유목민을 지칭한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기성세대의 땀이 일궈낸 경제성장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면서 부모세대들로부터 부여받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 신세대들은 과소비와 향락 문화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향유하였다.

셋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풍요에 기반에 바탕을 두고 탄생한 소비문화의 확대는 부모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TV·라디오 등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하였으며,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기기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이들이 접하게 된 영상매체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문화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만들었으며, 동일한 제품의 구매 등 대중매체를 모방한 소비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1980년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보화의 진행으로 PC보급과 인터넷 보급 확산은 디지털혁명을 가져왔으며 정보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창출하고 의식과 가치의 패러다임까지 전환시켰다. 신세대들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기존의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의 실제적인 만남이 일상생활의 기본방식이라면 시간과 거리의 한계가 극복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 만남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공간을 통한 정보의 파장은 빠른 속도를 통해 사회·경제·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세대는 부모세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놀이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여가문화가 만들어 지고 자신들만의 기호와 감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신세대의 공동체는 디지털 환경을 통해 쉽게 생겨나고, 쉽게 해체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을 이뤄낸 성과와 함께 전국 거리를 붉게 물들인 ‘붉은 악마’로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잠재된 흥을 일깨워준 신세대를 돌아보게 하였다. 신세대는 축구에 열광하면서 그를 위한 응원이라는 함께하는 놀이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신세대는 자신들의 문화를 ‘미숙한 문화’, ‘비행의 문화’, ‘하위문화’로 규정짓는 것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성세대의 문화를 향해 ‘낡은 세대’, ‘썩은 세대’ 등으로 폄하하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문화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세대의 놀이 문화는 부정적 의미의 기존의 놀이문화를 거부하면서 우리만의 놀이문화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유방식과 문화양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 2. 시대별 신세대

지금까지 살펴본 신세대의 특징에 의해 부모세대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기술적 지식이 뛰어나고 자기표현이나 가치관의 유형이 상이함을 경험하면서 당황해 하고 있다. 빈곤과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자유분방함과 자신들만 아는 자녀세대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문화·사회적 자유, 높은 교육열에 대한 교육 등

은 대중화된 현실에서 생활하는 신세대들에게 합리성을 습득하게 하였다.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다양한 외국 문화의 경험과 기회가 늘어나고 의식과 생활수준은 선진국화 되었다. 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호기심과 욕망이 증가하고 권위주위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면서 개인주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학교 전통 학습법과 교육목적, 교사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 권리와 의무, 가치실현 방식이 다르므로 기성세대와 갈등이 빈번하게 분출되고 부모와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신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즉 신세대,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의식이나 가치관이 무엇인가는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려는 최근의 지역사회의 고민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신세대의 인식과 행동양식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변화되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신세대의 기원을 찾아보면 가령 개항시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개항 이후 나타난 신세대는 집단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여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해 도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독립협회 운동, 계몽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청년”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60~70년대 근대 산업화를 진행시키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구세대와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세대간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70년대는 서구 사회문화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전통은 버려야할 구습으로 인식하였다. 젊은 세대들은 전통을 버려야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성세대들은 전통을 보존해야하는 가치로 간주하여 세대간의 가치관과 규범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성인세대’와 ‘청소년세대’간의 갈등으로 세대간의 연령범위가 구분되어졌다.

1980년대의 신세대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상정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으로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즉 갈등은 세대간의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것으로 특정 조직 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가령 기업조직, 노사관계, 학교, 가족 내부의 갈등이 있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가치관 불일치, 교사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의 저항, 가족 내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불일치,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의 불만 등이 세대간의 고려 대상이었다. 같은 연령 안에서 성, 교육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지역 등의 변수 등이 세대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진행된 세대간의 연구는 정보사회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다양한 표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 및 청소년에 대한 존재 인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9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신세대에 대한 시각은 ‘버릇이 없다’, ‘고생을 모른다’, ‘아킬 줄 모른다’, ‘자기 것만 챙긴다’, ‘인내심이 없다’ 등 부정적인 성향에 대한 것이다. 신세대 역시 기성세대들과 자신들의 관계를 미메시스의 흑백논리<sup>12)</sup>

12) 미메시스 동인들은 그들의 『신세대 : 네 멋대로 해라』에서 ‘신세대=자유/정의=선’과 ‘기



를 인용하여 저항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여겼다.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는 철없는 애들 째름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신세대가 변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이다. 예전에는 특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포스트모던’으로 인식하였다. 즉, 특이한 건축양식과 난해한 그림, 어울리지 않는 악기들로 구성된 새로운 연주기법,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고방식, 별난 행위 등을 설명할 때 포스트모던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포스트모던’을 대신하여 새움을 설명하는 용어로 ‘신세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표는 신세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표1> 세대별 특징

(기준년도:2005년)

구분	기성세대	386세대	2635세대	1325세대
나이	46~65세	36~45세	26~35세	13~25세
특징	-해방·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남. -군사독재 시절 청년기를 보냄 -경제1세대	-60년대 태어남 -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앞장 -정치1세대	-70년대 이후 출생 -X세대로 불리며 문화 개방의 열풍을 체험 -문화향유1세대	-80년대 태어남. -디지털 기기와 문화가 몸에 배어 있음 -디지털1세대

\* 출처 : 제일기획브랜드마케팅연구소

<표1>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인 19세에서 35세는 문화향유 1세대와 디지털1세대를 함께 포함한다.

신세대는 그들이 처음 새로운 세대로 인식되었던 1990년 초반에 비하여 2005년에 와서는 더욱 자기중심적이고, 개방적이며, 유행이나 브랜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에 반해 당시 지니고 있던 충동적이고 과도한 소비 성향은 합리적인 소비 행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세대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 되었고, 공유된 세대간의 행태가 세대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3. 신세대의 의식구조

자유를 강하게 표방하는 신세대<sup>13)</sup>들은 그들이 저항 혹은 부적응 등으로 기성세대를

성세대=억압/야만=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였다.

향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으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어지고 있다.

신세대는 영상매체나 광고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정형화된 문화를 소비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흔들리지 않는 침대에서 디지털 핸드폰에 의해 아침을 맞이하고 Takeout 전문점의 커피와 도넛을 먹고, 친구에게 가장 최신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연예인이 입는 브랜드의 옷과 화장품을 사용하고, 하루의 일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즉 신세대는 조장된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의 주체<sup>14)</sup>’로 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로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끊임없이 상품을 소비함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얻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보드리야르는 “자유시간과 소비는 하나의 제도로, 내재화 된 사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장 보드리야르, 1991). 여기서 경험되는 소비는 대중매체의 광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 대중의 무의식까지 지배를 함으로써 그들을 ‘소비의 주체’로 구성하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신세대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된다. 현대에서 소비는 자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생활양식으로 “상품”은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넘어 이미지와 상징, 개성과 자유, 쾌락과 환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결국 신세대들이 경험하는 현대의 소비는 이미지의 소비이며, 자유는 소비의 자유인 셈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는 주체적인 삶을 추구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강조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왕성하고 적극적이다. 자기중심적이며, 개인주의 경향이 짙다. 1970년대 이후 축적된 경제잉여를 향유하며 성장한 최초 세대로 전기밥솥과 햄버거, 콜라와 피자, 빵에 친근함을 느낀다. 외국영화와 외제 자동차, 위성방송에 익숙하고 텍스트에 의한 설명보다 비주얼로 표현되는 느낌을 중요시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보다 비디오, 멀티미디어, 패션, 록카페 등에 익숙하다. <표2>에서 신세대의 이전세대(기성세대)를 문자세대로 본다면 신세대는 영상세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3)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보고(2002)에서 청소년들 가운데 ‘자신이 신세대인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이며, 소비행태 또한 자유와 개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이러한 소비를 이미지소비라고 하며, CF나 사이버 문화에서 ‘얼짱문화’, ‘럭셔리 문화’ 등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과 같이 필수품을 소비하지 않으며, 욕망을 자극하도록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표2>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 비교

신세대	기성세대
감성적	이성적
좋고 싫음으로 판단	옳고 그름으로 판단
당장의 좋고 싫음이 기준	미래의 득실기준
이질지향 가치관	동일지향 가치관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남들처럼 살고 싶다
자기표현	자기절제
스스로 가치 창조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자기에게 충실	타인의식
해방된 감정	억제 및 절제된 감정
문화생산소비에 참여	문화의 수동적 향유
사용가치 중시	소유가치 중시
내면적 자아실현 가치추구	외면적 가치추구
개별성	집단성
평등지향	톱(Top)지향
혁신·모험주의	보수주의

\*출처 : 강정민(1998).p.127

둘째, 신세대는 다양한 영상매체와 인쇄문화의 접촉으로 서구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신세대들은 미국의 월드컵이나 프로레슬링을 실시간 즐기고 그들과 유사한 파티 문화 등을 도입해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 빈번해지고 있다.

셋째, 신세대는 남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며, 따라서 삶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혹은 개성주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성향은 일종의 PANTS(personal:개인화, amusement:향락, natural:자연추구, trans-border:무경계화, service:서비스정신)를 낳는다.

넷째, 정을 중시하는 기성세대는 남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세대는 인간적 공감이나 정에 얽매이기보다 이해관계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서구적인 합리주의를 선호한다.

다섯째, 신세대는 현재의 행복보다 감각지상주의, 패션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책을 읽고 논리적인 이해를 하기보다 비디오나 영상과 같이 이미지화된 지식습득을 선호한다.

여섯째, 신세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이성적 효과보다는 감성적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수입보다는 여가를 즐긴다.

마지막으로 신세대는 아버지보다 유명인의 말을 신뢰하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변화를 통해 욕구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세대는 정치적으로 무관심주의, 문화적으로 다원주의, 사상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 가치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여 일본, 미국과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국·미국·일본의 신세대<sup>15)</sup> 특징 비교

(기준:1994)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나이	18~24세	18~29세	29세이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지향적</li> <li>•자기중심주의</li> <li>•개인주의 개성중시</li> <li>•이해에 기초한 인간관계</li> <li>•현세주의</li> <li>•가치관상실</li> <li>•감각지상주의</li> <li>•권위부정, 전문가인정, 패션지향</li> <li>•감성의 부가가치, 여가중시</li> <li>•도전적 추진력 결과중시</li> <li>•인내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에 대한 깊은 동경과 반발</li> <li>•모노섹스시대</li> <li>•개인의 생활방식 존중</li> <li>•인종 편견 많음</li> <li>•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li> <li>•사회가치관을 부정하는 문화</li> <li>•에이즈(AIDS) 공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에 대한 등가의식</li> <li>•체제만족</li> <li>•색채감각이 뛰어남</li> <li>•음에 대한 섬세한 리듬감</li> <li>•패션의 폭발성</li> <li>•자기표현성 강함</li> <li>•문화적 융합성이 강함</li> <li>•자기표현시대</li> </ul>

\*출처 : 시사저널(1994.5)pp.42~56

한편 라이프스타일<sup>16)</sup>은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생활의 유형, 형식 또는 방법이지만 단순한 생활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의식을 연합한 생활양식이며 총합적 상징으로 특징을 지닌다. 라이프스타일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사회총체

15) 1994년 조사 당시 18세에서 24세는 신세대는 현재 29세에서 35세로 1976년~1970년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6)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생활양식은 집단차원에서 논의될 때 사용된다.

적인 것으로 부분 단계별 삶의 양식을 말한다. 이는 집단별, 단계별, 사회별로 특이성이 있는 생활의 요소나 질에 연관이 되어있다. 이런 특이성 혹은 상징은 문화, 자질, 법규, 신념 등의 요인 또는 이 요인들의 총체적인 가치관에서 연관이 되며, 따라서 신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은 7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의 구조적 측면인 생활의식, 생활 활동, 가치관, 태도 등의 복합체이다.

둘째, 소비재 또는 생활재의 구매소유, 사용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라이프스타일은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질과 양의 표현이다.

넷째, 라이프스타일은 특정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걸쳐 조사될 수 있다. 분석목적과 분석대상에 따라 개인, 가족, 직장, 사회, 집단, 계층 및 지역별로 라이프스타일일 밝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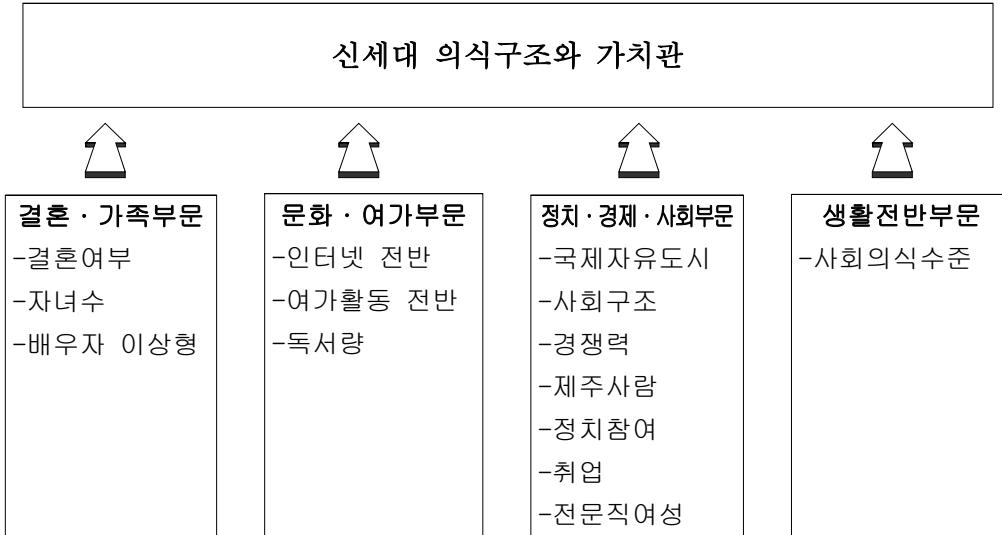
다섯째, 생활에 있어 라이프스타일은 단일적인 것이 아니며 무한대로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유사한 것과 상이한 것으로 분류하여 몇 개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여섯째, 라이프스타일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스템으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생활자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때 환경변화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종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다. 어느 쪽의 경향이 더 강한 가라는 것은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곱째, 라이프스타일이란 그것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생활자의 행위에 따라 주관적 의미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생활자의 행위에 따라 집단적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결국 집단 구성원이 동조해야하는 규범인 동시에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이러한 주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소수에 의하여 단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신세대 의식구조를 찾기 위한 모형틀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신세대 의식구조와 가치관



#### 4. 성역할의 변화

##### 1) 성관련 용어<sup>17)</sup>

성(sex), 성별(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성차별주의(sexism), 양성성(兩性性androgyny)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sex)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 몸, 생물학적인 성별을 의미하는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염색체, 호르몬, 생식기 등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성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sup>18)</sup>.  $(22A+X) + (22A+X) = 44A+XX$ 의 여성과  $(22A+X) + (22A+Y) = 44A+XY$ 로 염색체가 결정되고, 호르몬은 남성은 testosterone 이 여성은 estrogen과 progesteron으로 사춘기 이후 생물학적 특징을 보인다. 생물학

17) 성관련용어는 2002년 여성부에서 제작한 「여성정책 용어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여성부는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개칭되었음)

18) 태어나면서 고정되어있는 성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2차 성징이 드러난 후 성을 전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은 후천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성은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사회화과정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남성적·여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성보다 후천적 성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닌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는 것이다.

적 성차를 프로이드는 남성다움은 원초적이며 자연적인 것이며, 여성다움은 가치가 적고 인간의 원래적인 양성이 정상·비정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애이론과 해부학적 성차에 관한 이론 등에서 이미 남아의 경우 남근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거세공포를 느끼므로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를 해결함으로써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남성다움을 성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해부학적 이유로 남근 선망의 질투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어머니를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애정을 돌리면서 여성다움을 배우고 발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성별(gender)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남성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질 및 행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는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것으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따라서 sex과는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가령 태어난 아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서 입히는 옷의 색깔이 달라지고, 데리고 노는 양상과 이야기를 하거나, 시키는 일과 무엇을 잘 해야 한다는 기대가 상이해지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커서는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달라진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별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성격 특성, 태도, 선호경향, 행동 등이 성역할이 되는 것이다.

성성(性性sexuality)는 성적 욕망을 창조, 조직, 표현 및 방향 짓는 사회적 과정과 성에 대한 사고방식 및 행위양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성적 행위 혹은 사회적 관행으로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 일처다부제, 독지제도, 다부다처 제도 등이 있다. 성의 경향성 혹은 성의 정체성으로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가 있으며 성적 욕망, 성적관계 혹은 성의 정치성 등이 관련 내용이다. gender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 정립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sex role stereotype의 개념과 연결되기도 한다.

sexism은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와 행위를 일컫는 말로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며,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고 남성지배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성차별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대부분 생물학적 성차의 사고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성차별주의 형성과 극복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성차별주의 폐지라는 목표는 모든 여성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이다. androgyny는 그리스어의 남성(andro)에 여성(gyn)을 덧붙여 만든 말로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가 심리적으로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양성성의 등장은 여자답지 않은 여자, 남자답지 않은 남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두 특징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하고, 그 둘 사이의 균형정도는 각 개인의 성격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인 자웅동체성(hermaphroditism)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 2) 성역할(sex role)

성역할에 대하여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시몬드 보바르의 명제가 있다. 성역할은 습득된 특질, 하나의 할당된 지위로 여성의 역할을 자연에 귀속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인식된다. 케이트 밀레트는 정형화된 성역할이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를 확실히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이 어려서부터 사회를 남성·여성 영역으로 나누고 남성에게 공적인 힘을 부여하는 그런 체계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언어와 개념을 통해 여성들은 표현하는 성향을 남성들은 도구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억압으로 인해 여성들의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 활동이 배제된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엘리스 로씨, 세지 버나드와 베티 프리단은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사용해 현대적 여성억압은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역할을 주입시킨 결과라고 주장한다. 특히, 엘라자벳 제인웨이는 대중 방송매체에서 여성이 사실상 가사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정의된다고 주장하였다.

마가렛 미드는 「세 원시사회에 있어서 성과 기질(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1935)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남성다움이나 남성적 역할, 여성다움이나 여성적 역할이 부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4> 세 원시 사회 성역할구분

	성에 따른 역할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아라페슈족	온순·자녀양육	온순·자녀양육	여성적	여성적
문두구모족	공격·경쟁·적대	공격·경쟁·적대	남성적	남성적
챔블리족	예술·종교·수동성	경제·정치·적극성	여성적	남성적

이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에 따른 역할은 기질적이고,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이기 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역할은 결국 남성·여성간의 ‘심리학적’ 차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상황 지우기의 결과인 셈이다. 여자와 남자는 태생이 다르므로 사는 모습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의 가치관이다. 이처럼 한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 성역할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개인의 삶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정책의 여성주의가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따라 각각의 성역할을 습득하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격려한다. 이러한 사회화는 어릴 때부터 의식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소 변화하고 있지만 다감하고 순종적인 “여자다움”과 씩씩하고 권위적인 “남자다움”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사회화는 성격과 가치관, 직업관, 대인관계와 역할분담, 사회참여 등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성역할은 학습과정 이외 부모 등 가족, 동기간, 친척, 이웃, 친구, 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서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한 사회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의해 일정한 성규범을 갖게 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접·간접적으로 고정관념에 의하여 성통제의 대상이 된다. 사회 구조적으로 일정한 나이의 성인 남성이 나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과 이러한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제도 등 법제도 및 절차, 구조 등이 끊임없이 성역할에 의하여 유지되고 하나의 성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정관념에 의해 남녀의 성역할이 철저히 이분법으로 구분되어 왔다. 양성평등이 도입된 것이 불과 10년이 채 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직업 분야에서 전기기술자, 회사 대표, 공학부분, 건설부분 등 공적인 영역에 있어 높은 지위, 힘과 관련이 있는 영역은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의 영역은 비서나 보조자의 역할에 그치거나, 가정에 머무르고,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며 무직상태의 전업주부로 규정되어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가정생활에서도 공적인 영역을 남성이 담당하므로 남성의 홀벌이 상황은 물론 여성 자신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퇴근 후 바로 귀가하여 식사준비와 양육을 전담하는 관념이 자리 잡혀 있다.

이러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은 가부장제하에 강화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지녔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무의식에 내면화된 양성의 특징에 대한 고정적 인식은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변화가 있다해도 표면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제주 지역 여성의 경우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외지와 달리 다소 높게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남편의 보조자로서 생계를 담당하기 위한 역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은 교육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양성적 인간상이 바람직한 이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대중매체에서도 흔히 새로운 남성과 여성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Mr.Beauty<sup>19)</sup>와

19) Mr.Beauty와 Ms.Strong은 일본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 하울

Ms.Strong이 그 예이다. Mr.Beauty는 남성들이 여성처럼 수동적이며, 연약하고 미모와 패션에 신경을 쓰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열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강인함을 주장하는 남성의 성역할 규범과 상반된다. 반면 Ms.Strong은 여성이 수동적이며 연약하다는 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강인한 여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성역할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 3) 성역할의 변화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 있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최근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성에 따른 가정에서의 지위, 정책에서의 지위, 법적인 지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점차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중장기 여성발전 기본계획수립, 남녀차별개선지침 등을 통해 여성의 지위변화를 예고하며 각 부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역할의 변화는 신세대의 새로운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중요한 배경요인이다. 따라서 성역할의 변화와 관련된 몇몇 통계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신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이다. 특히 제주도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제주지역 신세대의 배경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① 성 및 연령의 변화

성역할의 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성 및 연령의 분포일 것이다. 제주도는 외지와 커다란 차이가 없이 인구의 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연소연령의 감소와 남아출산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성비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과 여주인공에서도 나타난다. 여주인공은 마술에 빠져 할머니로 변하게 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순간 강한 여성으로 실제의 나이로 변신한다. 이 애니메이션은 변화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대중매체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아름다운 남자에 대한 CF 등의 등장을 통해 위버(강한 남성성)적인 남성적 이미지에서 아름다움이 가미된 남성 이미지들 또한 가능한 젠더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5> 제주도 성 및 연령계층별 인구 및 비율

(단위:명.%)

구분	여자				남자			
	전체	연소연령 (14세이하)	생산연령 (15-64세)	노령인구 (65세이상)	전체	연소연령 (14세이하)	생산연령 (15-64세)	노령인구 (65세이상)
전체								
1985	248,913 (100)	75,185 (30.2)	154,947 (62.2)	18,781 (7.5)	239,387 (100)	78,953 (32.9)	153,777 (64.2)	6,657 (2.7)
1990	260,204 (100)	<b>63,596</b> (24.4)	174,723 (67.1)	21,885 (8.4)	254,232 (100)	<b>67,957</b> (26.7)	178,328 (70.1)	7,947 (3.1)
1995	263,137 (100)	<b>56,818</b> (21.5)	181,485 (68.9)	24,834 (9.4)	248,954 (100)	<b>61,344</b> (24.6)	178,552 (71.7)	9,058 (3.6)
2000	273,242 (100)	<b>55,986</b> (20.4)	<b>186,035</b> (68.0)	<b>30,221</b> (11.0)	254,054 (100)	<b>62,677</b> (24.6)	193,336 (76.1)	<b>13,113</b> (5.1)
2002	276,960 (100)	<b>57,466</b> (20.7)	<b>186,803</b> (67.4)	<b>32,691</b> (11.8)	273,871 (100)	<b>63,415</b> (23.1)	195,095 (71.2)	<b>15,361</b> (5.6)
2003	277,456 (100)	<b>57,398</b> (20.6)	<b>186,104</b> (67.0)	<b>33,954</b> (12.1)	274,841 (100)	<b>63,391</b> (22.2)	194,859 (70.8)	<b>16,591</b> (5.8)

\*출처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4. 재편집

제주도민의 평균연령은 <표6>에서 보면 2000년 평균연령이 32.8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평균 추계연령은 39.4세로 제주도는 고령사회로 이미 전환되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출산의 감소와 평균여명의 상승과 함께 유년인구와 청소년 인구 감소, 의료 기술의 발달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6> 제주도 성별 평균연령(1970-2020)

(단위:세)

연도	전체	여자	남자	남녀차이
1970	24.1	26.2	22.0	4.2
1980	25.7	27.6	23.7	3.9
1995	31.3	33.1	29.4	3.7
2000	<b>32.8</b>	<b>34.6</b>	<b>31.1</b>	<b>3.5</b>
2010	36.1	37.5	34.7	2.8
2020	39.4	40.6	38.3	2.3

\*출처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② 교육의 변화

해방이후 교육기회의 균등화, 보편화사상과 교육의 권리의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 상승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육기회의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났으며, 이 압력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1985년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6.6년인데 반해 남자는 9.7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2000년 남자가 11.5년 여자는 9.0년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표7> 평균교육년수

(단위: 년)

연도	평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985						
전체	8.0	6.6	11.1	9.6	7.8	3.5
여자	6.6	6.7	10.6	8.5	6.1	1.9
남자	9.7	6.6	11.6	10.6	9.6	6.4
1990						
전체	9.1	8.0	12.1	10.8	8.7	4.4
여자	7.7	8.0	11.8	9.9	7.5	2.6
남자	10.5	8.0	12.4	11.6	10.2	7.4
1995						
전체	9.7	6.5	12.7	12.0	9.9	5.4
여자	8.5	6.6	12.8	11.3	8.7	3.4
남자	11.1	6.4	12.7	12.6	11.0	8.3
2000						
전체	10.2	4.2	13.3	12.9	11.0	6.2
여자	9.0	4.5	13.4	12.5	10.0	4.1
남자	11.5	4.0	13.2	13.4	12.1	9.1

\*계산방법: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초급 및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이상중퇴는 14년으로 계산.

\*출처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성별 상급학교 진학률 역시 2004년 남녀간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어 여성이 진학에 있어 차별이 줄어들게 되고 교육 확대 및 사회 진출 등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표8>성별진학률

(단위:명,%)

구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전국	327865	365211	100.0	100.0	283725	316653	99.7	99.7	281364	307186	79.7	82.8
제주	4013	4230	100.0	100.0	3142	3325	99.5	<b>99.6</b>	3127	3423	90.5	<b>94.7</b>

\*1)진학률=  $\frac{\text{각급학교 진학자}}{\text{각급학교 졸업자}} \times 100$

2)대학교는 산업대와 방송통신대 포함

\*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지역여성통계.

여성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전문직종과 연계된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의 경우 취업이나 결혼 등 학업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 상급학교의 진학률은 12%로 낮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2004년 여성은 전체의 43%가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는 물론 교육에 있어 전반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전공분야 구성비에 있어 성 차이는 여전히 전공 선택에 반영되고 있다. 2001년 통계를 보면 여성은 사범계 62%, 인문계 57%, 예체능계 56%, 의약계 48%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들이 6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0년 전체 여대생 비율이 22.2%로 예체능계 66%, 사범계 52%로 높은 비율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적용되어 공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은 남성에게, 감수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어학 등은 대부분 여성의 전공으로 선택되어져 왔다. 즉 외향적인 성향의 전공은 남성의 영역으로, 내향적이며 돌봄노동 등과 연계되는 것은 여성의 일로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9> 여성의 대학원 진학률

(단위 : 명)

구분	총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6,640	807	2,597	221	-	-	4,043	586
1975	13,870	2,278	4,236	390	-	-	9,634	1,888
1980	33,939	5,786	11,133	1,370	-	-	22,806	4,416
1985	68,178	12,452	19,155	2,429	207	3	48,816	10,020
1990	87,163	19,566	25,175	4,983	384	35	61,604	14,548
1995	113,836	31,787	34,620	8,638	1,081	174	78,135	22,975
2000	229,437	80,072	68,841	22,533	2,657	633	157,939	56,906
2001	243,270	91,677	71,680	25,312	3,016	770	168,574	65,595
2002	262,867	104,237	77,241	28,980	3,344	821	182,282	74,436
2003	272,331	112,718	79,832	31,518	3,622	932	188,877	80,268
2004	276,918	119,181	80,122	33,233	3,870	1,107	192,926	84,8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재편집

<표10-1>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인문계 · 사회계 · 자연계)

구분 Classification	합계 Total		인문계 Humanities		사회계 Social Sciences		자연계 Natural Sciences	
	계 T	여 F	계 T	여 F	계 T	여 F	계 T	여 F
1970	146,414	32,641	17,786	6,067	35,734	3,322	59,264	7,024
<b>(1970년비율)</b>		<b>22.2%</b>		<b>34%</b>		<b>9%</b>		<b>12%</b>
1975	208,986	55,439	36,611	11,488	37,343	3,308	74,410	9,247
1980	402,979	90,634	54,252	16,979	85,197	6,596	166,137	19,121
1985	931,884	250,088	150,141	64,033	257,738	36,489	336,624	49,796
1990	1,040,166	296,129	156,164	72,624	286,814	50,815	419,891	80,087
1995	1,187,735	378,418	166,480	86,808	306,487	78,160	523,002	108,166
2000	1,665,398	596,389	225,224	126,400	444,799	159,118	727,548	161,012
2001	1,729,638	626,982	232,263	131,274	465,999	170,695	750,046	168,926
<b>(2001년비율)</b>		<b>36%</b>		<b>57%</b>		<b>36.6%</b>		<b>23%</b>
국립 National	361,678	124,401	30,387	18,967	75,903	26,641	199,661	49,598
공립 Public	20,115	5,568	1,837	1,068	6,886	2,064	10,308	1,991
사립 Private	1,347,845	497,013	200,039	111,239	383,210	141,990	540,077	117,337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표10-2>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의약계·예체계·사범계)

구 분 Classification	의약계 Medical Sci. & Pharmacy		예체계 Arts & Phys. Ed.		사범계 Teaching Profession	
	계 T	여 F	계 T	여 F	계 T	여 F
1970	12,845	4,416	7,782	5,115	13,003	6,697
<b>(1970년 비율)</b>		<b>34%</b>		<b>66%</b>		<b>52%</b>
1975	16,813	6,143	12,621	8,739	31,188	16,514
1980	22,111	7,004	21,871	15,578	53,411	25,356
1985	39,408	12,934	53,177	32,970	94,796	53,866
1990	40,430	14,299	69,029	39,206	67,838	39,098
1995	44,707	17,332	84,660	47,134	62,399	40,818
2000	61,983	29,652	138,815	78,133	67,029	42,074
2001	62,992	30,404	149,878	83,264	68,460	42,419
<b>(2001년 비율)</b>		<b>48%</b>		<b>56%</b>		<b>62%</b>
국립 National	15,734	6,752	16,976	9,402	23,017	13,041
공립 Public	-	-	1,084	445	-	-
사립 Private	47,258	23,652	131,818	73,417	45,443	29,37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과정에 있어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교구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도 성역할 모델의 변화가 일어났다. 1982년 개정된 초등학교(국민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실과, 바른생활, 체육 등 6과목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과 관련된 남자는 73%로 주부 및 간호사를 제외한 전 직종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미 교과서를 통해 여성-주부-아내-어머니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왔고 여성은 무임노동으로 가사노동에, 남성은 임노동의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에 성 역할이 고정되어 왔다.

중등교과서 역시 남성의 출현빈도가 53%로 남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여성은 대부분 아내 또는 어머니로 혼인여부가 명시되어있고,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 등장인물은 전체의 16.2%만이 혼인여부가 드러나 있고 직업영역에 68.4%가 등장한다. 결국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과 함께 가족영역에 대부분 드러나 있다. 게다가 등장인물들은 남성은 지성적, 용감, 통솔력, 적극적, 독립적, 공격적 이미지로 강조되어 있으며, 여성은 비지성적, 감정적, 의존적, 소극적, 순종적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시켜왔었다.

이러한 현실은 제7차 교과과정 분석을 통해 2003년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국어교과서가 여전히 '정형화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제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중1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차별 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으며 국어교과서의 등장인물 성격도 남성은 주체적인 삶의 영위자로서의 특성이 부각된 반면, 여성은 여전히 정서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저자 가운데 성별이 확인이 된 47명중 남성은 35명(74.5%), 여성은 12명(25.5%)으로 집계됐다.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물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소설 ‘소나기’의 ‘소녀’나 설화 ‘지네장터’의 ‘순이’ 등 대부분의 여성 등장인물은 가족이나 부모,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된 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가정·기술 교과서(‘가정생활 문화의 변화’ 부분)는 결혼의 의미 자체를 자녀 출산, 양육 사회화를 통한 사회 유지 및 문화 계승, 사회의 성질서 유지(사회적 의의), 인간의 생리적 성적 욕구 충족, 정서적 안정, 인격적 성숙, 자녀 출산의 기획 습득(개인적 의의)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의의를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닌 존재로 인식,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 여성이나 비혼모를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전통적인 여성상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이성에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교과서는 가족생활의 주기 역시 자녀의 출산, 자녀 결혼 독립, 부부의 은퇴 사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기술·가정 교과는 성편견적 또는 성차별적 생각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7차 교육 과정부터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신설, 남녀 학생 모두가 이수하고 있다.

도덕 교과서에서도 양성평등의 의식 부재 및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개념의 문제점은 드러난다. 현 고1 도덕 교과서는 크게 ‘현대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화’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민족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느 단락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대 흐름에 맞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변화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성역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가족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먼타임스 218호 2005.6.14)

그 밖에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접근이 경력단절의 장벽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단체, 여성회관, 대학부설 사회교육 기관, 각종 문화센터, 그밖에 사회단체가 운영 하는 교육 기관 등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단체들은 대부분의 설립목적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두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새로운 여성의 역할을 깨우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후 산업화에 따라 여성들에게 취업지도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유도에 주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여성회관의 설립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으로부터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



과 90년 후반 IMF로 혼란을 담당하는 가장을 대신하기 위한 창업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인원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고학력의 여성들이 늘어가면서 저소득 우선 수혜를 원칙으로 하는 기술위주의 교육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양 위주의 교육으로 양분되고 있다.

성별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성들은 여전히 교양강좌와 직업훈련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인터넷 환경과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은 전업주부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표11> 성별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 및 교육이수 일수

(단위:%)

연도	평생학습 참여율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라디오 강좌청취		기타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참여 비율	교육 이수 일수
1996													
전체	24.1	10.8	1.25	4.3	3.05	7.4	0.65	5.1	0.29	6.6	1.61	0.3	0.06
여자	19.1	7.6	0.79	4.5	3.88	8.4	0.61	1.9	0.45	5.4	1.29	0.3	0.02
남자	29.7	14.4	1.60	4.0	2.13	6.2	0.71	8.7	0.15	8.0	1.96	0.4	0.10
2000													
전체	17.2	7.8	11.9	3.6	74.3	3.3	24.3	2.1	20.9	3.7	25.9	0.4	21.5
여자	15.2	5.1	12.1	4.0	73.5	4.5	27.0	0.9	36.5	3.8	22.7	0.4	25.3
남자	19.4	10.7	11.8	3.1	75.4	1.9	17.5	3.4	16.4	3.6	29.5	0.5	18.0
2004													
전체	23.2	44.0	9.5	10.8	56.5	24.3	22.7	20.3	14.6	16.9	50.5	0.7	3.5
여자	20.9	39.5	7.5	15.0	61.4	33.4	28.3	13.5	20.8	19.5	74.0	1.1	3.7
남자	25.7	48.1	11.0	7.0	46.8	16.1	12.2	26.5	11.7	14.5	21.6	0.4	3.0

\*출처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③ 경제부문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이 138,000명, 남성이 153,000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5%이다. 학력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평균 52.3%로 남성의 72.9%에 비하면(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력에 따른 실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실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취업처가 부재하며 출산이나 결혼 보육 등의 이유로 경력의 단절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력단절을 이유로 만혼과 무자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12> 교육 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1,000명, %)

연도/교육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90								
계	109	125	56.5	71.8	0	1	0.0	0.8
중졸이하	73	52	56.2	63.4	0		0.0	0.0
고졸	27	48	51.9	72.7	0	1.29	0.0	0.0
대졸이상	8	24	72.7	92.3	0	1.96	0.0	0.0
2000								
계	118	141	57.6	75.0	1	1	0.8	0.4
중졸이하	62	40	54.9	59.7	0	0	0.0	0.0
고졸	39	71	55.7	80.7	0	1	0.0	1.4
대졸이상	16	31	72.7	93.9	0	0	0.0	0.0
2004								
계	106	135	52.3	72.9	3	5	2.6	4.1
중졸이하	47	30	54.7	70.0	1	1	1.7	2.6
고졸	33	54	47.2	72.9	1	2	3.4	4.2
대졸이상	27	50	55.6	74.8	1	2	3.6	4.7

\*출처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경제활동 참가율을 산업 및 사업체 남녀대표 분포를 통해 구분해보면 여성의 경제 참여 부문이 비정규직이며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

(단위: 천명)

산업	2002				2003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제주	전국			
계	17,916	23,840	42.9	35.7	18,029	24,107	42.8
농업 및 임업	3	375	0.8	2.3	4	364	1.1
어업	16	103	13.4	6.6	24	91	20.8
광업	0	11	0	5.5	3	11	21.4
제조업	529	1,416	27.2	15.7	530	1,359	28.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28	0	0.9	0	27	0
건설업	118	910	11.5	7.5	121	925	11.6
도매 및 소매업	6,224	5,796	51.8	37.3	6,047	5,738	51.3
숙박업	6,886	3,238	68.0	67.9	7,019	3,321	67.9
운수업	195	4,932	3.8	3.1	219	5,233	4.0
통신업	25	78	24.2	14.8	25	86	22.5
금융 및 보험업	42	568	6.9	9.0	35	557	5.9
부동산 및 임대업	227	625	26.7	25.0	223	649	25.6
사업서비스업	95	643	12.9	10.6	95	626	1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업보장행정	11	356	3.0	1.5	9	361	2.4
교육 서비스업	874	581	60.0	57.3	910	590	60.7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322	588	35.3	30.1	354	601	37.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22	984	34.7	32.7	553	951	36.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827	2,608	41.2	36.2	1,858	2,617	41.5

\*출처 :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2)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④ 정치부문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부문이 여성의 정치참여로 제주 지역의 경우 여성단체장은 민선 3기동안 입후보가 1명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표14>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2002)

(단위: 명)

지역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제주	3	0	1	0	6	0	4	0
전국	55	0	16	0	750	8	232	2

주: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이는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15>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수

(단위: 명)

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자	전체	여자
17대 국회의원	2002	제주	11	0	3	0
		전국	1,175	66	243	1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16>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단위: 명)

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시·도의원회	1991		49	0	17	0
	1995		45(4)	0(1)	17(3)	0(1)
	1998		38(4)	1(2)	14(3)	0(1)
	2002	제주	39(7)	1(4)	16(3)	0(2)
		전국	1,531	48	609	14
시·군의원회	1991		94	1	51	0
	1995		124	1	51	0
	1998		87	0	41	0
	2002	제주	85	0	38	0
		전국	8,373	222	3,485	77

주: ( )안은 비례대표 도의원임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 Ⅲ.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제주 지역의 신세대 여성들이 어떠한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1. 조사 대상 및 기간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5세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예비조사 : 2005년 10월 13일-10월 14일까지
- 설문보완 : 2005년 10월 15일-10월 19일까지
- 조사원훈련 : 2005년 10월 18일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본조사 : 2005년 10월 20일-10월 27일까지(7일간)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제주 사람, 제주 사회의 생활, 즉 가정,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전반 및 여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등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 4. 설문의 제한점

첫째,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앞으로의 심층적인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설문문항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

를 포함하거나,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영역과 범위를 조사연구의 목적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개요

최근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제주사회는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세대는 연령적으로 젊은 세대이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구세대와 구별되는 세대로, 제주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세대 제주여성의 전반적인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조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 양상과 그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19세에서 35세 이하의 제주도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생활의 초점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를 벗어나는 성인연령과 함께, 경제성장기에 태어나 사회적, 문화적 변혁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우리나라 초기 X세대(신세대)의 한계 연령인 35세를 기준으로 설정된 연령이다. 제주도에 19-34세 여성 65,240 중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여성을 층화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제주 사람, 제주 사회의 생활, 즉 가정,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전반 및 여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05년 10월 13일에서 10월 14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요원을 통해 2005년 10월 20일에서 10월 2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5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등을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결측치(missing data)로 인해 문항간의 총합계에 차이가 있다.

####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전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략 4-5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19-24세 204명(39.2%), 25-29세 165명(31.7%), 30-34세 152명(29.2%)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26.4세였다. 교육정도는 초졸 이하 2명(0.6%), 고졸이하 41명(11.7%), 대졸이하 300명(86.9%), 대학원이상 6명(1.7%)으로 나타났다.

형제수는 평균 3.3명이었으며, 장녀인 경우가 228명(45.5%), 기타의 경우가 263명(44.5%)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397명(76.2%), 기혼 124명(23.8%)이었다. 기혼 중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명(19.4%), 자녀수 1명이 37명(29.8%), 2명이 55명(44.4%), 3명이 7명(5.6%), 5명이 1명(0.8%)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현재 자녀를 출산한 기혼 여성 100명 중 추가 출산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25명(15.0%), 추가 출산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75명(75.0%)이었다. 취업상태는 취업 329명(63.1%), 미취업 192명(36.9%)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의 취업형태는 정규직 189명(60.0%), 비정규직 90명(28.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합형태 28명(8.9%), 기타 8명(2.5%)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는 1.7년이었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 앞으로의 희망취업분야는 특수직, 전문직, 교육직 53명(35.8%), 사무직 39명(25.7%), 서비스직 36명(23.7%), 36명(23.7%), 생산직, 단순직, 영업직 9명(6.0%), 기타 15명(9.9%)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포함한 월평균소득은 88만원 정도였다. 거주지는 제주도 331명(63.5%), 서귀포시 85명(16.3%), 북제주군 64명(12.3%), 남제주군 41명(7.9%)으로 나타났다.

<표17>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범주형 특성		응답자수(명)	비율(%)
항 목	구 분		
연령	19-24세	204	39.2
	25-29세	165	31.7
	30-34세	152	29.2
교육정도	초졸이하	2	0.6
	고졸이하	41	11.7
	대졸이하	300	86.0
	대학원이상	6	1.7
장녀여부	장녀	228	45.5
	기타	263	44.5
결혼상태	미혼	397	76.2
	기혼	124	23.8
자녀수	자녀 없음	24	19.4
	1명	37	29.8
	2명	55	44.4
	3명	7	5.6
	5명	1	0.8



범주형 특성		응답자수(명)	비율(%)
항 목	구 분		
추가출산의사	있음	25	15.0
	없음	75	75.0
취업여부	취업(취업형태)	329	63.1
	정규직	189	60.0
	비정규직	90	28.6
	정규직 + 비정규직	28	8.9
	기타	8	2.5
	미취업(취업희망)	192	36.9
	특수, 전문, 교육직	53	35.8
	사무직	39	25.7
	서비스직	36	23.7
	생산, 단순, 영업직	9	6.0
	기타	15	9.9
거주지	제주시	331	63.5
	서귀포시	85	16.3
	북제주군	64	12.3
	남제주군	41	7.9
연속형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521	26.42	4.30
형제수(명)	508	3.31	1.37
결혼년수(년)	124	5.05	3.71
자녀수(명)	124	1.40	0.92
현직장근속년수(년)	329	1.74	2.37
월평균 용돈액(만원)	521	87.84	120.87

## 2. 가정부문

### 1) 배우자, 결혼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

(1) 이성/배우자의 중요한 조건

이성 혹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력 209명(40.1%), 성격 183명(35.5%), 직업 79명(15.3%), 기타 15명(2.9%), 집안 13명(2.5%), 교육수준 및 종교가 각 6명(1.2%), 제주도 사람 5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능력과 함께 품성을 이성/배우자의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지역에 국한되어 고려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1%) 실정으로 여성의 도외 이주에 대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18> 이성/배우자의 중요한 조건

구분	빈도	비율
직업	79	15.3
제주도 사람	5	1.0
교육수준	6	1.2
경제력	209	40.1
성격	183	35.5
집안	13	2.5
종교	6	1.2
기타	15	2.9
합계	516	100.0

(2) 혼전관계 가능 여부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관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보통 197명(38.5%), 그렇다 138명(27.0%), 그렇지 않다 104명(20.3%), 매우 그렇지 않다 42명(8.2%), 매우 그렇다 31명(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준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유사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이지만 혼전관계에 대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표19> 혼전관계 가능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2	8.2
그렇지 않다	104	20.3
보통	197	38.5
그렇다	138	27.0
매우 그렇다	31	6.1
합계	512	100.0

(3) 결혼이 필수인지의 여부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에 대해 보통 177명(34.4%), 그렇다 147명(28.5%), 그렇지 않다 91명(17.7%), 매우 그렇다 57명(11.1%), 매우 그렇지 않다 43명(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수준의 응답과 함께 긍정적인 응답을 모두 합할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74%)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더 이상 결혼생활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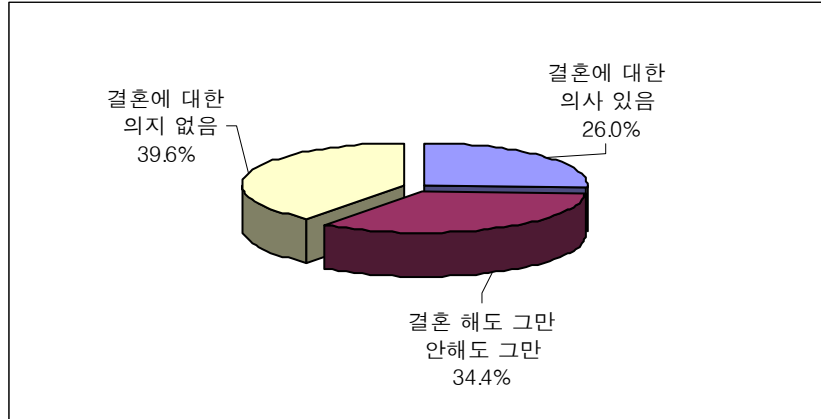
<표20> 결혼이 필수는 아님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3	8.3
그렇지 않다	91	17.7
보통	177	34.4
그렇다	147	28.5
매우 그렇다	57	11.1
합계	515	100.0

이를 다시 보면 결혼에 대하여 결혼 의사가 있는 경우는 긍정적인 경우는 26%, 결혼에 대하여 보통 중간수준을 34.4%로 보면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가 39.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2> 결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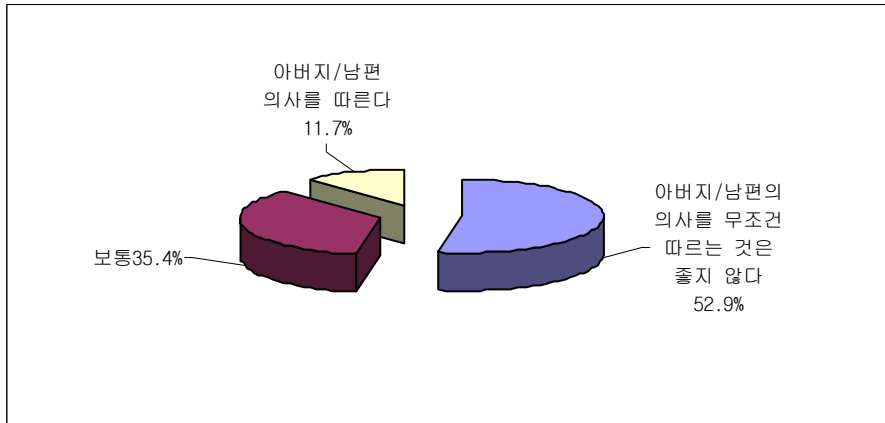
(4) 집안에서 남편/아버지 의사결정 우선 여부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편/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 199명(38.7%), 보통 182명(35.4%), 매우 그렇지 않다 73명(14.2%), 그렇다 56명(10.9%), 매우 그렇다 4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는 신세대 여성은 1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남편/아버지 등 남성 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표21> 남편/아버지 의사결정 우선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73	14.2
그렇지 않다	199	38.7
보통	182	35.4
그렇다	56	10.9
매우 그렇다	4	0.8
합계	514	100.0

<그림3> 남편/아버지의 의사결정 우선 여부



## 2)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 (1) 결혼 후 자녀출산

미혼 여성은 결혼 후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낳을 예정 330명 (78.4%), 상황봐서 낳을 수 있음 59명(14.0%), 낳지 않을 예정 32명(7.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미혼 여성의 대다수는 결혼 후 자녀를 적당한 시기에 낳으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도 22%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 결혼 후 자녀출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결혼 후 자녀출산

구분	빈도	비율
낳지 않을 예정	32	7.6
상황봐서 낳을 수 있음	59	14.0
적당한 시기에 낳을 예정	330	78.4
합계	4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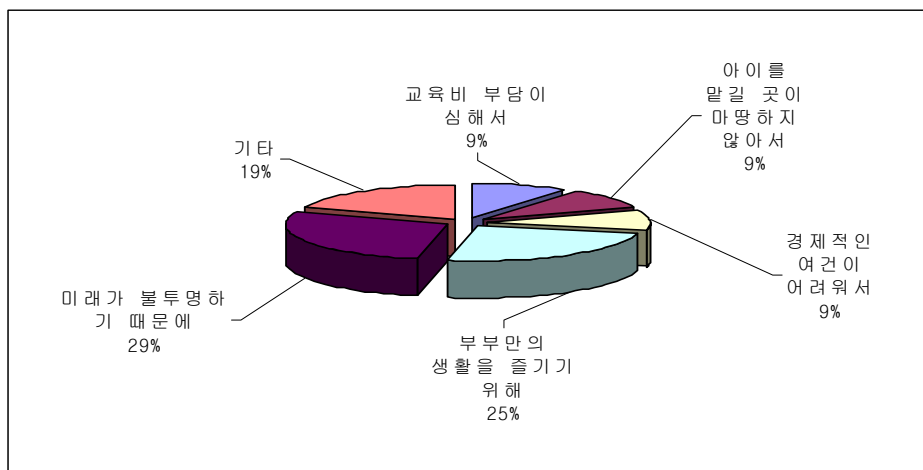
(2)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

결혼 후 출산하지 않으려는 여성은 그 이유에 대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9명(28.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8명(25.0%), 기타 6명(18.8%), 교육비 부담, 아이 양육문제, 경제적 여건이 각각 3명(9.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녀출산에 따른 부모로서의 부담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도 상당하여 결혼과 자녀에 대한 신세대 여성의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해주고 있다.

<표23> 결혼 후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교육비 부담이 심해서	3	9.4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3	9.4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3	9.4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8	25.0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9	28.1
기타	6	18.8
합계	32	100.0

<그림4> 출산하지 않는 이유



(3) 자녀출산을 위한 상황

결혼 후 상황을 봐서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미혼 여성은 자녀출산을 위한 상황에 대해 경제적 능력 39명(82.9%), 자녀의 필요성 4명(8.6%), 배우자와 상의 2명(4.3%), 건강상태 및 주위의 시선이 각 1명(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출산을 위한 상황에 대해 경제적 능력에 대한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녀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그에 따른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24> 자녀출산을 위한 상황

구분	빈도	비율
건강상태	1	2.1
경제적 능력	39	82.9
자녀의 필요성	4	8.6
배우자와 상의	2	4.3
주위의 시선	1	2.1
합계	47	100.0

(4) 이상적인 자녀의 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전체 여성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에 대해 2명 302명(61.8%), 1명 88명(18.0%), 3명 62명(12.7%), 무자녀 23명(4.7%), 4명 14명(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균 자녀수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이상적인 자녀의 수에 대해 2명이라는 일반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무자녀 내지 1명의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하며, 이와 대조적인 응답인 3명, 4명 등의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비율도 예상외로 높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곧 출산자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25> 이상적인 자녀의 수

구분	빈도	비율
0명	23	4.7
1명	88	18.0
<b>2명</b>	<b>302</b>	<b>61.8</b>
3명	62	12.7
4명	14	2.9
합계	489	100.0
빈도	평균	표준편차
489	1.91	0.78

(5) 아들선호 여부

집안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181명(35.1%), 보통 163명(31.7%), 매우 그렇지 않다 89명(17.3%), 그렇다 67명(13.0%), 매우 그렇다 15명(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아들선호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신세대 여성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26>아들선호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89	17.3
그렇지 않다	181	35.1
보통	163	31.7
그렇다	67	13.0
매우 그렇다	15	2.9
합계	515	100.0

(6)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 기업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첫째의 경우 보육비보조 292명(56.3%), 보육시설확대 123명(23.7%), 출산장려금 77명(14.8%), 보육도우미지원 15명(2.9%), 의료비지원 및 기타가 각각 6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의 경우 보육시설확대 236명(48.3%), 출산장려금 76명(15.5%), 보육비보조 71명(14.5%), 의료비지원 58명(11.9%), 보육도우미지원 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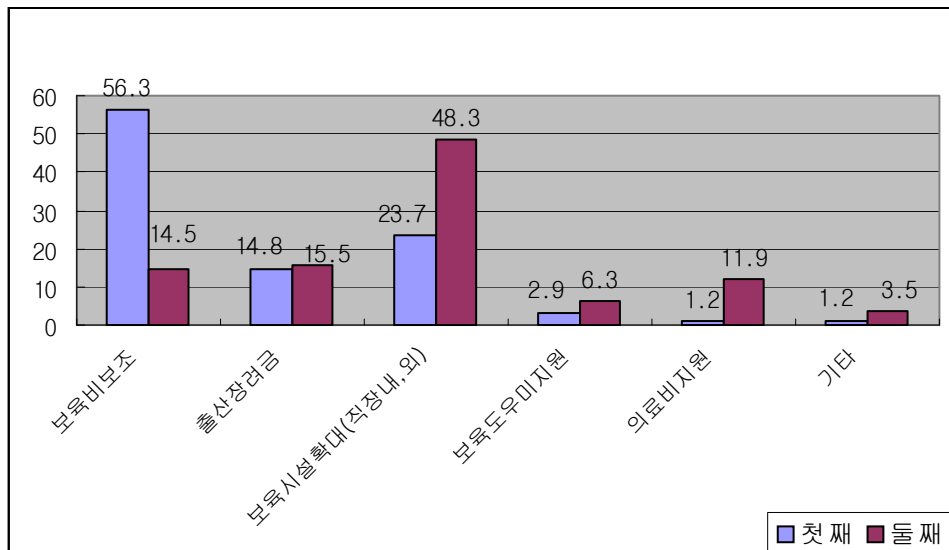


(6.3%), 기타 17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단기간의 지원보다는 보육비 보조와 함께 보육시설의 확대 등 장기적인 보육 지원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27>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첫째		둘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육비보조	292	56.3	71	14.5
출산장려금	77	14.8	76	15.5
보육시설확대(직장내, 외)	123	23.7	236	48.3
보육도우미지원	15	2.9	31	6.3
의료비지원	6	1.2	58	11.9
기타	6	1.2	17	3.5
합계	519	100.0	489	100.0

<그림5>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 3. 문화 · 여가 부문

#### 1) 정보화 부문

##### (1) 인터넷 사용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예 490명(94.0%), 아니요 31명(6.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여성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8> 인터넷 사용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31	6.0
예	490	94.0
합계	521	100.0

##### (2)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이 하루 평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30분~1시간 이하 163명(33.2%), 1시간~2시간이하 130명(26.5%), 30분 이하 100명(20.1%), 6시간 이상 18명(3.6%), 3시간~4시간이하 15명(3.1%), 4시간~5시간이하 14명(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의 일일 평균 시간은 1.74시간으로 약 2시간 정도여서 상당한 시간을 인터넷에 사용하고 있었다.

<표29>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구분	빈도	비율
30분 이하	100	20.1
30분~1시간 이하	163	33.2
1시간~2시간 이하	130	26.5
2시간~3시간 이하	49	10.0
3시간~4시간 이하	15	3.1
4시간~5시간 이하	14	2.9
6시간 이상	18	3.6
합 계	490	100.0
<b>빈 도</b>	<b>평균</b>	<b>표준편차</b>
490	1.74	1.75

(3)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0명(65.6%), 잘 하지 못해서 3명(16.7%), 관심없음과 아이가 어려서가 각 2명(11.1%), 컴퓨터가 없다 1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관련이 있었으며,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능력 등의 개인적 조건과는 큰 관계가 없었다.

<표 30>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관심 없음	2	11.1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0	65.6
아이가 어리다	2	11.1
잘 하지 못해서	3	16.7
컴퓨터가 없다	1	5.6
합계	18	100.0

(4) 인터넷 이용목적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성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첫째 이유로는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 198명(40.6%), 개인정보공개 122명(25.0%), 쇼핑, banking, 전자상거래 56명(11.5%), 동호회활동 24명(4.9%), 방송, 연예정보, 게임, 성인물 44명(8.4%), 채팅, 메신저 이용, 전자우편 42명(8.7%) 기타 2명(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쇼핑, banking, 전자상거래 188명(39.8%), 개인정보공개 91명(19.2%), 방송, 연예정보, 게임, 성인물 72명(15.2%),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 58명(12.2%), 채팅, 메신저 이용, 전자우편 49명(10.4%), 동호회활동 15명(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응답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이용이 첫째는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젊은 세대에서 최근에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미니 홈피, 블로그 등의 개인정보 공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쇼핑, banking,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과 방송, 연예정보, 게임, 성인물 등의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신세대의 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표31> 인터넷 이용목적

구분	첫째		둘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	198	40.6	58	12.2
동호회 활동	24	4.9	15	3.2
개인정보공개(미니홈피,블로그)	122	25.0	91	19.2
채팅,메신저 이용, 전자우편	42	8.7	49	10.4
방송,연예정보,게임, 성인물	44	8.4	72	15.2
쇼핑, banking, 전자상거래	56	11.5	188	39.8
기타	2	0.4	0	0.0
합계	488	100.0	473	100.0

2) 여가부분

(1) 여가활동 여부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예 370명(71.0%), 아니요 151명(29.0%)의 응답을 보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성들의 비율도 상당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32> 여가활동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151	29.0
예	370	71.0
합계	521	100.0

(2)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부족 113명(87.2%), 관심, 동기, 취미, 의지 등의 부족 10명(6.7%), 육아, 자녀문제 5명(3.3%), 경제적 문제 4명(2.8%)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시간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부족이 절대적 시간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시간제약감 내지 압박감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에서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33>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경제적 문제	4	2.8
관심, 동기, 취미, 의지 등의 부족	10	6.7
시간부족	113	87.2
육아, 자녀문제	5	3.3
합계	151	100.0

(3) 여가 활동 내용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활동 빈도와 비율의 경우 인터넷 사용 214명(57.8%), TV시청 204명(55.1%), 문화활동 187명(50.5%), 전문강좌 73명(19.7%), 걷기·마라톤 63명(17.0%), 운동시설 이용 61

명(16.5%), 등산 40명(10.8%), 취미강좌 27명(7.3%), 기타 10명(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신세대의 경우 TV시청이 아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비중이 높은 여가활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세대의 여가활동이 문화활동을 비롯하여 자기개발과 관련된 강좌수강 및 운동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여가활동의 주당평균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과 TV시청이 7.1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강좌 4.92시간, 기타 4.40시간, 운동시설이용 3.69시간, 취미강좌 3.37시간, 걷기·마라톤 3.34시간, 등산 2.65시간, 문화활동 2.24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여가활동별 월평균 지출비용은 전문강좌 약 4만3천원, 운동시설이용 약 3만원, 취미강좌 약 2만6천원, 문화활동 약 9천3백원, 등산 약 9천 2백 5십원, TV시청 약 7백원, 걷기·마라톤 약 5백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의 장소 및 특징에 따른 수강료, 시설이용료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34> 여가활동 내용

구분	빈도 (중복응답)	비율 (%)	주당 평균소요시간	월평균지출 비용(원)
전문강좌(외국어 등)	73	19.7	4.92	43013.70
취미강좌(공예 등)	27	7.3	3.37	25925.93
등산	40	10.8	2.65	9250.00
걷기·마라톤	63	17.0	3.34	476.19
운동시설이용	61	16.5	3.69	29590.16
TV 시청	204	55.1	7.18	715.69
인터넷사용	214	57.8	7.18	5164.95
문화활동 (공연·영화·연극·음악)	187	50.5	2.24	9342.25
기타	10	2.7	4.40	7600.00

#### (4) 개인별 여가활동 현황

<표 34>의 결과를 평균값으로 개인별 여가활동 현황으로 나타내보면 여가활동은 최소 1개에서 최대 8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2개 정도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주당 여가활동시간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41시간(하루 평균 약 5.9시간)으로, 주당 평균 여가활동시간은 4.93시간(하루 평균 0.70시간)이었다. 월평균 여가지출비용은 최소 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출의 차이가

켰는데, 평균지출비용은 약 1만2천원 정도였다.

<표35> 개인별 여가활동 현황

구분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갯수	371	1	8.0	2.37	1.32
여가시간(주)	371	0	41.0	4.93	5.14
여가지출비용(월/원)	371	0	2000000.0	11701.57	23901.00

### 3) 문화부문

#### (1) 월 평균 독서량

월 평균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1권 197명(37.8%), 2권 124명(23.8%), 1권 이하 103명(19.8%), 3권 40명(7.7%), 4권 19명(3.6%), 5권과 6권-10권이 각 각 14명(2.7%), 11권 이상 10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독서량은 월평균 2.07권으로 약 2권 정도였다.

<표36> 월 평균 독서량

구분	빈도	비율
1권이하	103	19.8
1권	197	37.8
2권	124	23.8
3권	40	7.7
4권	19	3.6
5권	14	2.7
6권-10권	14	2.7
11권 이상	10	1.9
<b>합계</b>	<b>521</b>	<b>100.0</b>
<b>빈도</b>	<b>평균</b>	<b>표준편차</b>
521	2.07	3.64

#### (2) 가장 선호하는 도서부문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부문은 소설이 235명(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간지 85명(18.2%), 수필 38명(8.1%), 전문서적 33명(7.1%), 만화 28명(6.0%), 기타 16명(3.5%), 시 3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7> 가장 선호하는 도서부문

구분	빈도	비율
소설	235	50.3
수필	38	8.1
시	3	0.6
주간지(시사 등)	29	6.2
월간지(패션, IT등)	85	18.2
만화	28	6.0
전문서적	33	7.1
기타	16	3.5
합계	467	100.0

#### 4. 정치·경제·사회 부문

##### 1) 일반적인 여성관련 의식

###### (1)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183명(35.5%), 그렇다 251명(48.7%), 보통 70명(13.6%), 그렇지 않다 9명(1.7%), 매우 그렇지 않다 2명(0.4%)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신세대 여성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38>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확대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	0.4
그렇지 않다	9	1.7
보통	70	13.6
그렇다	251	48.7
매우 그렇다	183	35.5
합계	515	100.0

(2) 학교교육에 대한 의식

학교 교육이 양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 278명(54.3%), 그렇다 108명(20.7%), 그렇지 않다 107명(20.5%), 매우 그렇다 13명(2.5%), 매우 그렇지 않다 6명(1.2%)의 응답을 보여, 중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학교교육이 양성평등적인지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6	1.2
그렇지 않다	107	20.5
보통	278	53.4
그렇다	108	20.7
매우 그렇다	13	2.5
합계	521	100.0

(3) 남성의 군 입대에 대한 여성의 대체활동

남성의 군 입대에 대하여 여성이 대체할 활동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보통 202명(39.5%), 그렇지 않다 152명(29.7%), 그렇다 95명(18.6%), 매우 그렇지 않다 47명(9.2%), 매우 그렇다 15명(2.9%)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식을 보였다.

<표40> 남성의 군 입대에 대한 여성의 대체활동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7	9.2
그렇지 않다	152	29.7
보통	202	39.5
그렇다	95	18.6
매우 그렇다	15	2.9
합계	511	100.0

(4) 종중재산에 대한 대법원판결

종중재산을 여자에게도 나누어주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 260명(50.5%), 매우 그렇다 130명(25.2%)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보통의 응답자는 110명(21.4%)이었으며, 그렇지 않다 9명(1.7%), 매우 그렇지 않다 6명(1.2%)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식을 보인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해 가부장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표41> 종중재산 처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감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6	1.2
그렇지 않다	9	1.7
보통	110	21.4
그렇다	260	50.5
매우 그렇다	130	25.2
합계	511	100.0

2)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

(1) 여성취업의 어려움

제주도에서 여성이 취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노동시장의 협소가 213명(40.9%)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은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기회편중 122명(23.4%), 취업을 위한 기회부족 94명(18.0%) 등의 응답이 높았다.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44명(8.4%), 취업을 위한 교육부족 36명(6.9%)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취업의 어려움이 여성자신에게 있기 보다는 제주도 산업구조의 편중과 남성 중심적인 채용문화 등, 주로 시장과 문화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기회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제주도에서 여성취업의 어려움

구분	빈도	비율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노동시장의 협소	213	40.9
취업을 위한 교육 부족	36	6.9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44	8.4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기회편중	122	23.4
취업을 위한 기회부족	94	18.0
기타	10	1.9
합계	521	100.0

## (2) 여성취업 증진을 위한 방안

제주도에서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주도의 산업구조 재개편 157명(30.1%), 여성취업자에 대한 일정비율 제도 도입 112명(21.5%),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90명(17.3%),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의식변화 62명(11.9%), 취업에 대한 여성의식변화 50명(9.6%), 취업정보에 대한 공개 42명(8.1%), 기타 6명(1.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재개편하거나 일정비율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의 강제적 성격의 제도와 법의 시행(Affirmative Action)이 우선되어야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여성자신의 인식변화와 전문 능력의 향상 등 여성 스스로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표43> 제주도에서 여성취업 증진을 위한 방안

구분	빈도	비율
제주도의 산업구조 재개편	157	30.1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90	17.3
취업 정보에 대한 공개	42	8.1
여성취업자에 대한 일정비율 (할당제형식 등)제도 도입	112	21.5
취업에 대한 여성의식 변화	50	9.6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의식변화	62	11.9
기타	6	1.2
합계	521	100.0

(3) 전문직 여성 비율

제주도에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 182명(34.9%), 전문직종에 있어 남성에게 기회편중 135명(25.9%), 전문직 진출을 위한 교육 부족 103명(19.8%), 전문직 진출을 위한 정보부족 88명(16.9%), 기타 10명(1.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여성취업 증진 방안과 유사하게 제주도의 산업 구조 및 취업기회의 편중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화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 부족과 정보부족을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여성자신의 능력과 준비 부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44> 제주도에서 전문직 여성이 적은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	182	34.9
전문직 진출을 위한 교육 부족	103	19.8
전문직 진출을 위한 정보부족	88	16.9
전문직종에 있어 남성에게 기회편중	135	25.9
기타	10	1.9
합계	521	100.0

3) 여성의 정치활동

(1) 여성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

현재 여성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 206명(40.1%), 보통 173명(33.7%), 매우 그렇다 79명(15.4%), 그렇지 않다 49명(9.5%), 매우 그렇지 않다 7명(1.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신세대 여성들이 현재 여성 정치인의 활동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정치인 자체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구세대 여성과 구별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45> 현재 여성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7	1.4
그렇지 않다	49	9.5
보통	173	33.7
그렇다	206	40.1
매우 그렇다	79	15.4
합계	514	100.0

(2) 정치활동 의사

기회가 된다면 지역과 사회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고 싶은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 188명(36.4%), 보통 154명(29.8%), 그렇다 85명(16.5%), 매우 그렇지 않다 61명(11.8%), 매우 그렇다 28명(5.4%)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신세대 여성들은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스스로 정치활동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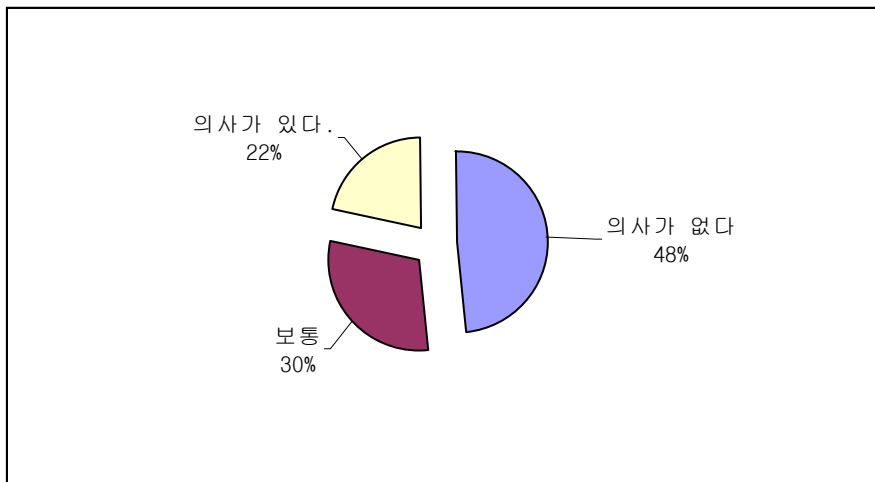
이는 남성도 그러하지만, 정치활동이 특수한 사회활동이어서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비율이 약 22% 정도였던 것은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의식을 반영한 변화된 의식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46> 정치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61	11.8
그렇지 않다	188	36.4
보통	154	29.8
그렇다	85	16.5
매우 그렇다	28	5.4
합계	516	100.0

이를 다시 정치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살펴보면 정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48%,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30%로 정치할 의사가 22%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여성이 정치참여에 대한 의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6> 여성의 정치참여 의사정도



(3) 여성의 정치활동 수준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 오 488명(93.7%), 예 27명(5.2%)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표47>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정도

구 분	빈도	비율
예	27	5.2
아니오	488	93.7
합계	515	100.0

(4)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이유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질문 후 예, 아니오라고 대답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 각 그러한 참여 수준의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우선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활발하다고 생각한 여성들은 그 이유에 대해 여성의 능력이 적당 9명(33.3%), 남성중심의 문화가 약함 6명(22.2%),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지지가 높음 4명(14.8%),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 수준이 높음 3명(11.1%), 기타 2명(7.4%),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지지 높음 1명(3.7%)으로 응답하였다.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그 이유를 주로 여성자신의 능력이 충분하고, 제주 사회가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었다. 반면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 이유를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함 145명(29.7%),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지지가 낮음 133명(27.3%),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 수준이 낮음 90명(18.4%),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지지 낮음 62명(12.7%), 여성의 능력이 부족 20명(4.1%),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 낮음 19명(3.9%), 기타 8명(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주로 제주사회가 남성중심이고, 따라서 여성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즉 이들은 여성자신의 능력문제가 아니라 제주사회의 남성 중심적 문화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과는 정반대로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주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48> 제주도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에 대한 이유

구분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의 능력이 적당/부족	9	33.3	20	4.1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지지 높음/낮음	4	14.8	133	27.3
여성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지지 높음/낮음	1	3.7	62	12.7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 수준이 높음/낮음	3	11.1	90	18.4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 높음/낮음	0	0.0	19	3.9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함/약함	6	22.2	145	29.7
기타	2	7.4	8	1.6
합계	27	100.0	488	100.0

4) 제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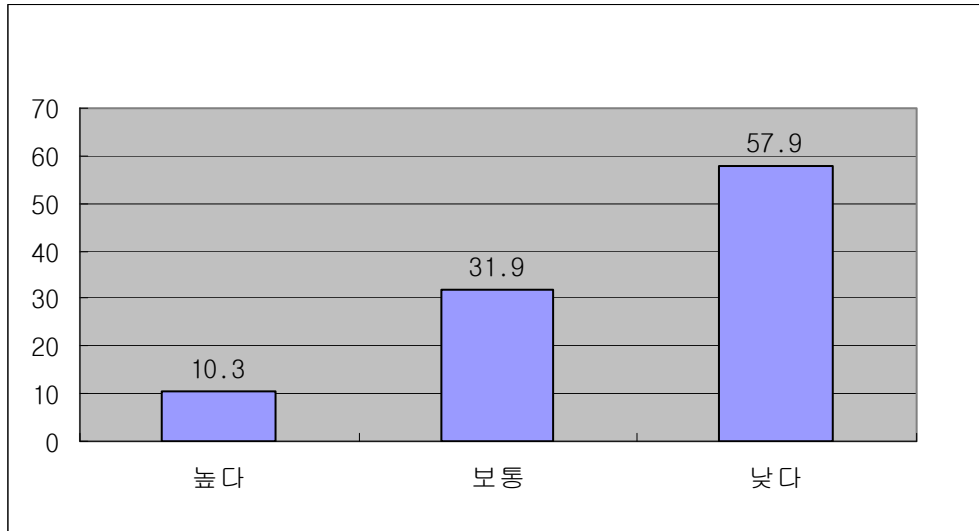
제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육지부 여성보다 높다는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은 그렇지 않다 254명(50.0%)으로 나타나 절반의 여성들이 육지부 여성에 비해 제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는 인식을 하였다. 그 다음은 보통 162명(31.9%), 매우 그렇지 않다 40명(7.9%), 그렇다 44명(8.7%), 매우 그렇다 8명(1.6%)의 순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49> 육지부 여성보다 제주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40	7.9
그렇지 않다	254	50.0
보통	162	31.9
그렇다	44	8.7
매우 그렇다	8	1.6
합계	508	100.0



<그림7> 육지부와 비교한 제주여성의 지위



## 5. 일반 사회 의식

### 1) 제주 사람에 대한 인식

제주 사람에 대한 표현한 것 중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조사하였는데, 다소 임의적이지만, 표현의 내용에 따라 긍정, 중간, 부정적인 응답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제주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의 응답 비율이 50.8%(263명)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간적인 응답(199명, 38.4%),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56명, 10.8%)의 비율로 나타나 제주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 직접적인 부정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간적인 응답으로 간주하였으나, 만일 중간적인 응답을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에 포함시킨다면, 제주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역시 약 50%에 달하므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각 각 절반 정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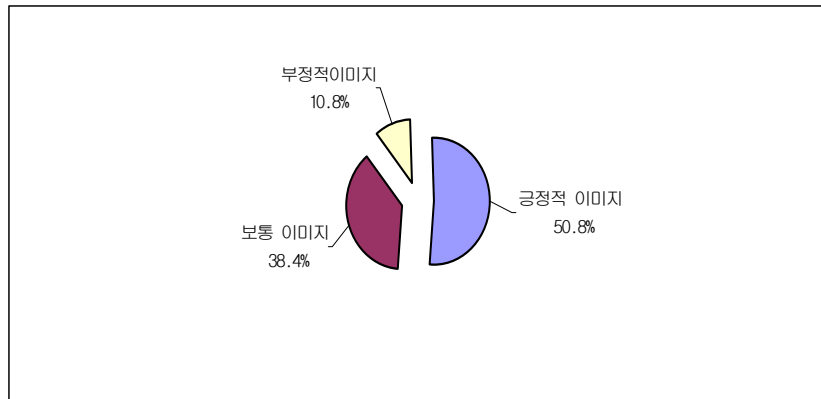
한편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제주 사람에 대해 무뚝뚝하다는 것(162명, 31.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지런하다 85명(16.4%), 마음이 넓다 59명(11.4%), 폐쇄적이다 43명(8.3%) 등의 응답이 높았고, 성실하다 31명(6.0%), 순박하다 30명(5.8%), 검소하다 27명(5.2%), 성격이 급하다 19명(3.7%), 알뜰하다 13명(2.5%)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 밖에 소수의 의견으로 과격하다 7명(1.3%), 성격이 느리다 6명(1.2%), 개방적이다, 독선적이다, 단순하다, 소심하다가 각 각 1명(0.2%) 등이 있었

다.

<표50> 제주 사람의 표현에 대한 응답

	구분	빈도	비율
긍정적인 측면의 응답	마음이 넓다	59	11.4
	부지런하다	85	16.4
	성실하다	31	6.0
	알뜰하다	13	2.5
	검소하다	27	5.2
	착하다	17	3.3
	순박하다	30	5.8
	개방적이다	1	0.2
	<b>소 계</b>	<b>263</b>	<b>50.8</b>
중간적인 응답	무뚝뚝하다	162	31.2
	성격이 급하다	19	3.7
	성격이 느리다	6	1.2
	자기방어적이다	11	2.1
	단순하다	1	0.2
	<b>소 계</b>	<b>199</b>	<b>38.4</b>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	찌찌하다	2	0.4
	마음이 좁다	2	0.4
	폐쇄적이다	43	8.3
	독선적이다	1	0.2
	과격하다	7	1.3
	소심하다	1	0.2
	<b>소 계</b>	<b>56</b>	<b>10.8</b>
합계		519	100.0

<그림8> 제주사람에 대한 평가



2)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부문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174명(33.5%),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113명(21.8%), 국제적인 기업유치 84명(16.2%), 시설이나 전문기관 설립 81명(15.6%), 영어교육 59명(11.4%), 기타 8명(1.5%)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정부나 제주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유치, 영어교육, 시설과 기관 설립보다 오히려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이나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등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더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51>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부문

구분	빈도	비율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174	33.5
국제적인 기업유치	84	16.2
영어교육	59	11.4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제고	113	21.8
시설이나 전문기관 설립	81	15.6
기타	8	1.5
합계	519	100.0

### 3) 제주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

제주도의 독특한 사회구조에서 해소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이 많았던 것은 경제 침체 196명(37.8%), 학연, 지연, 혈연 등 권당문화 122명(23.6%), 육지부와의 소외감 58명(11.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여성들이 제주 사회의 경제와 더불어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지역적 유대감과 소외감 등 독특한 사회문화적 정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밖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무분별한 개발 42명(8.1%), 지역간 불균형발전 36명(6.9%), 생산구조의 편중 28명(5.4%), 환경오염 19명(3.7%), 개인이기주의 및 남성중심문화 각 6명(1.2%), 산남·산북의 갈등 5명(1.0%) 등으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표52> 제주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

구분	빈도	비율
경제침체	196	37.8
생산구조의 편중	28	5.4
환경오염	19	3.7
무분별한 개발	42	8.1
학연, 지연, 혈연 등 권당문화	122	23.6
산남, 산북의 갈등	5	1.0
육지부와의 소외감	58	11.2
지역간 불균형 발전	36	6.9
개인이기주의	6	1.2
남성중심 문화	6	1.2
합계	518	100.0

### 4) 제주생활에 대한 만족도

#### (1) 제주도의 경제수준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제주도의 경제수준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 233명(45.1%), 그렇다 171명(33.1%), 그렇지 않다 89명(17.2%), 매우 그렇다 16명(3.1%), 매우 그렇

지 않다 8명(1.5%)의 응답을 보여, 제주도의 미래 경제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제주도의 경제수준에 대한 긍정적 전망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8	1.5
그렇지 않다	89	17.2
보통	233	45.1
그렇다	171	33.1
매우 그렇다	16	3.1
합계	517	100.0

(2)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 189명(36.3%)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68명(13.1%)여서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보통 114명(21.9%), 그렇지 않다 113명(21.7%)의 응답비율도 높은 수준이었고, 매우 그렇지 않다 33명(6.3%)으로 거주지 및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성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54>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3	6.3
그렇지 않다	113	21.7
보통	114	21.9
그렇다	189	36.3
매우 그렇다	68	13.1
합계	517	100.0

(3) 제주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제주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사회의식부문의 경우 보통 335명(64.8%), 불만족 120명(23.2%), 만족 52명(10.1%), 매우 불만족 6명(1.2%),

매우 만족 4명(0.8%)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 및 수준의 경우 보통 239명(46.2%), 불만족 195명(37.7%), 만족 54명(10.4%), 매우 불만족 27명(5.2%), 매우 만족 2명(0.4%)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및 수준의 경우 불만족 230명(44.7%), 보통 136명(26.4%), 매우 불만족 100명(19.4%), 만족 48명(9.3%), 매우 만족 1명(0.2%)으로 나타났다. 환경시설 및 수준의 경우 보통 263명(51.2%), 만족 143명(27.8%), 불만족 82명(16.0%), 매우 만족 14명(2.7%), 매우 불만족 12명(2.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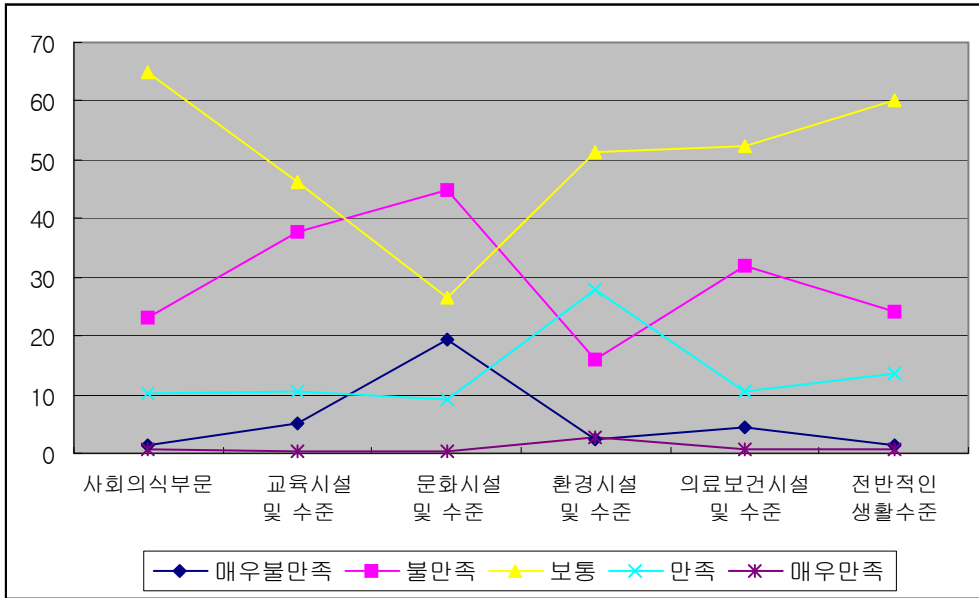
의료보건시설 및 수준의 경우 보통 270명(52.5%), 불만족 164명(31.9%), 만족 54명(10.5%), 매우 불만족 23명(4.5%), 매우 만족 3명(0.6%)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경우 보통 311명(60.2%), 불만족 125명(24.2%), 만족 70명(13.5%), 매우 불만족 8명(1.5%), 매우 만족 3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값을 고려해보면 환경시설 및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3.13), 그 다음은 전반적인 생활수준(2.87), 사회의식부문(2.86), 의료보건시설 및 수준(2.71), 교육시설 및 수준(2.63)의 순이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것은 문화시설 및 수준(2.26)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준의 만족도가 3점이므로 제주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즉 불만족수준과 보통수준 사이 정도의 만족도 수준이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제주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의식부문	517	6	1.2	120	23.2	335	64.8	52	10.1	4	0.8	2.86	0.63
교육시설 및 수준	517	27	5.2	195	37.7	239	46.2	54	10.4	2	0.4	2.63	0.76
문화시설 및 수준	515	100	19.4	230	44.7	136	26.4	48	9.3	1	0.2	2.26	0.88
환경시설 및 수준	514	12	2.3	82	16.0	263	51.2	143	27.8	14	2.7	3.13	0.79
의료보건시설 및 수준	514	23	4.5	164	31.9	270	52.5	54	10.5	3	0.6	2.71	0.74
전반적인 생활수준	517	8	1.5	125	24.2	311	60.2	70	13.5	3	0.6	2.87	0.67

<그림9> 제주도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V. 결론 및 제언

### 1. 부문별 조사 결과

제주사람, 제주사회에 대해 4가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 의식구조와 가치관 기초조사는 제주도 신세대 여성이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제주 여성은 외지 여성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지위, 자아존중감 내지 가정 내 권력 등 다양한 측면이 외지 여성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여성의 지위는 외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외지 여성에 비해 제주도 여성의 경제참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일부 지위가 다르게 인식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회·경제·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제주 여성은 외지 여성의 경우와 유사한 의식을 보였다. 원래부터 비슷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기성 세대의 여성과 차이가 나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인지의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의 경우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주하는 지역과 무관하게 유사한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사회·통신 기술 등의 발달 등 여러 배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각 영역별로 제주지역 신세대 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결혼·가족 부문

##### (1) 이성/배우자 조건과 결혼

한 신문사의 발표에 따르면 20~30대 미혼자 7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배우자 조건은 경제력(32.2%), 인성(27.7%), 잠재적 능력(24.5%), 지역·종교(11.1%), 학벌·집안환경(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필수(29.1%)에 반해 선택(63.5%)을 다수라고 응답했으며, 자녀는 1명(37.7%), 낳지 않겠다(11.6%)고 조사된 바 있다(연합뉴스 2005. 1. 14).

이 조사결과와 제주 지역 신세대 여성의 의식구조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외지 여성에 비해 다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56> 육지부와 제주 신여성의 배우자선호 · 결혼 · 자녀 · 의식비교

구분	육지부	제주신세대여성
이성/배우자 조건	경제력(32.2%)	경제력(40.1%)
결혼 여부	필수(29.1%)	필수(26.0%)
자녀수	1명(37.7%)	<b>2명(61.8)</b>

혼전순결은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대부분 여성에게 강조되어 온 가치관으로 여성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신세대 여성들은 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71.6%가 결정권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적 여성의식에서 크게 변화된 의식부문으로 혼전 동거 등을 소재로 한 대중매체의 영향 또한 의식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내 권력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과거 가부장의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사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로 변모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구성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출산에 대한 부문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산의 양상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다만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외지의 출산율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는 기존의 DINK족의 개념이 THINKERS(싱커스)로 Two Healthy Income No Kids, Early Retirement로 단순히 맞벌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임여성 평균 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2005년 1.16명으로 80%이상 감소함에 따라 노동인구구조에 따른 생산구조, 연금 및 복지구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을 위한 조건으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의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은 보육·교육 등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 경제적 여건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 선호에 있어 52.4%가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비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출생성비가 꾸준히 높아 가는 실정<sup>20)</sup>임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산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보육비 보

20) 2000년 출생성비가 105.6%에서 2001년 111.2%, 2002년 118.4%, 2003년 110.6%, 2004년 112.1%로 전국 평균 108.2%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이는 경상남도(113.1%), 경상북도(112.8%)에 이어 3번째에 해당된다.

조 등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많은 부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더욱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과의 연계를 위한 일반적 추세로 볼 수 있다.

## 2) 문화·여가 부문

### (1) 정보화

컴퓨터의 사용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통계는 전체 여성의 45.4%의 여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용도는 PC통신, 인터넷으로 전체 사용자의 사용용도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신세대 여성 94%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연령대별 격차를 고려하면 평균 20세에서 39까지 여성의 약 65%수준의 사용 수준을 볼 때 커다란 격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은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과 쇼핑, 인터넷 बैं킹 등 전자상거래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행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에 있어 TV시청, 인터넷,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조사통계에서도 여성의 경우 수면, 가사를 제외하고 TV시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여가활동에 가사와 수면을 제외 한 것은 돌봄서비스는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문항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여가활동의 영역은 소극적인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시간부족(87.2%)을 꼽고 있으나, 사회통계조사는 경제적 부담(44.2%)을 가장 많이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제주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1,701.57원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을 여가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성 평균 1인당 19.7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월 평균 독서량은 1권이 37.8%를 차지하므로 평균 독서량보다 다소 낮은 비율이나 교양서적을 위주로 독서는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정치·경제·사회부문

#### (1) 사회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의 확대에 대하여 84.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양성평등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진행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조사자의 21.7%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견해는 53.4%,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23.2%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교재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군 문제와 관련 대체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증재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여성을 중증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므로 가부장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3월 호주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정장적 권위주의 가족 문화가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되는 추세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경제

경제 부문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역의 산업구조가 1·2차 산업보다 3차 서비스 산업 위주의 구조와 그에 따라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여성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전문직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취업 기회 역시 남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산업구조의 개편과 여성취업자에 대한 일정한 할당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방안으로 보인다.

#### (3) 정치

OECD 국가 가운데 GEM(2004년 기준) 정도는 68위로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정치에 대한 활동 여부에 있어서 21.9%만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정치인에 대하여 55.5%가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여부에 있어 93.7%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하므로 이러한 원인은 유권자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낮고,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 여성에 대한 경제·사회·정치 부분에 대하여 여성의 지위는 육지부와 비교 하여 낮은 지위에 속한다고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적인 정책이 발굴되어야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 4) 생활전반부문

제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긍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은 부지런하다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해녀의 이미지가 강하게 인식되었으며, 이들은 지역의 환경에 의해 바다일과 농사일을 겸하는 노동문화에 익숙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무뚝뚝함과 폐쇄적인 부분이 제주인의 이미지로 가장 두드러지는 성향이다. 섬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폐쇄성이 성향에 반영된 것이며, 지리적으로 한라산이 놓여 있어 산남과 산북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무뚝뚝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에 대한 의견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꼽고 있다. 이는 앞서 제주사람의 성향 가운데 개방적이지 못하고(0.2%), 자기방어적(2.1%)이며, 소심하고(0.2%), 폐쇄적(8.3%)인 성향으로 국제자유 도시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지 못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학연·지연·혈연 등 강한 권당문화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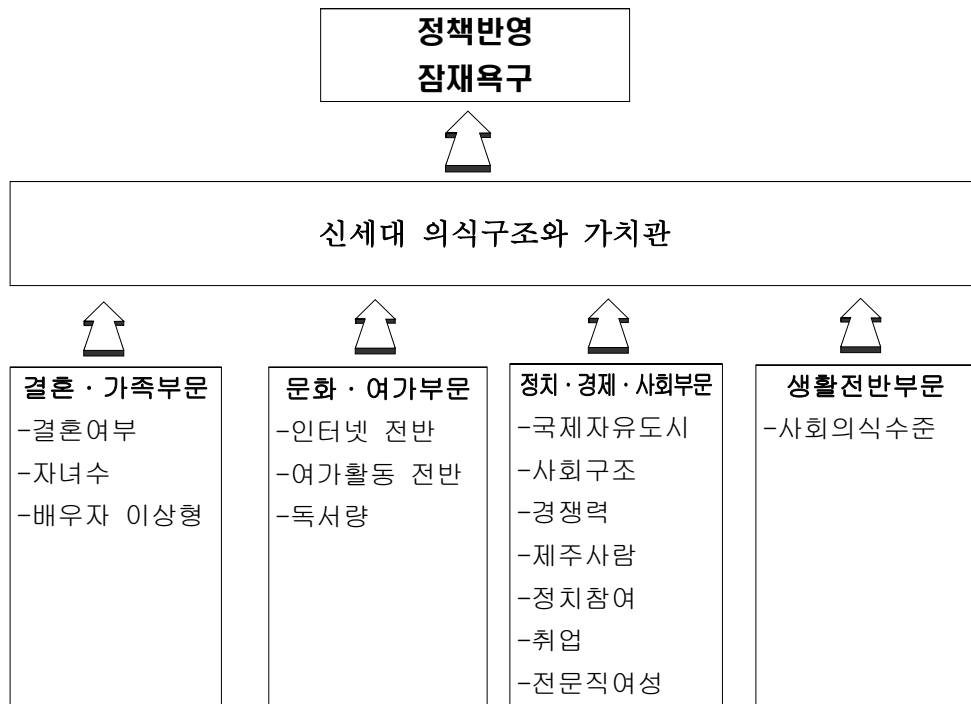
제주도는 사회문제 가운데 경제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지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다.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관광을 통해 경기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오는 결과이다. 그 외 외지와의 소외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로 섬으로서 제주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육교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비용 등 제반 여건이 고비용을 요구하고, 설령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외지와의 소외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사회문제이다.

제주도에서 정주 여부에 대하여 49.4%가 긍정적으로 생활여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반면 28.1%는 계속 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10.9%, 불만족이 24.4.% 보통이 64.8%로 여기서 보통의 의견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생활 여건의 불만족이 제주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문화 시설 및 수준이며 교육 시설 및 수준, 의료보건 시설 및 수준 등이며, 가장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환경시설 및 수준으로 청정제주의 현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세대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외지와 상이한 결과를 드러내기보다 유사한 방향으로 의식이 동질화되어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반영을 위한 개념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림10> 신세대 의식구조와 가치관과 정책반영 개념도



## 2. 제주 신세대 여성을 위한 정책 제언

각 부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세대 제주 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4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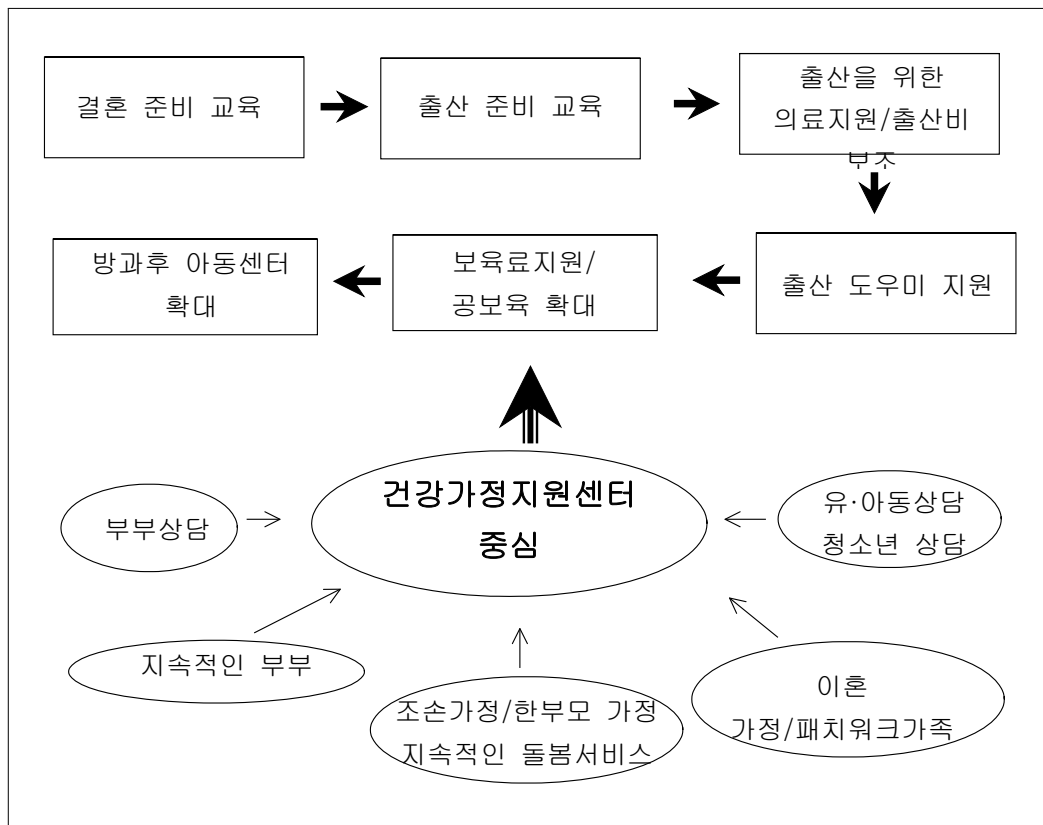
### 1) 가정부문

현재 보육료 지원 및 보육 도우미 지원 등이 각 부분별로 지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를 통합관리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즉,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 결혼, 보육, 고령까지 생애주기별 각 프로그램의 일원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안정적인 가정을 육성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전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위해 현재 보육, 육아, 교육 등이 함께 지원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 설립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정책적인 서비스 및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해 볼 수 있다.

<그림11> 건강가정 지원센터 중심의 가정지원체계



## 2) 문화·여가 부문

문화·여가부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문화관련 시설들의 다양한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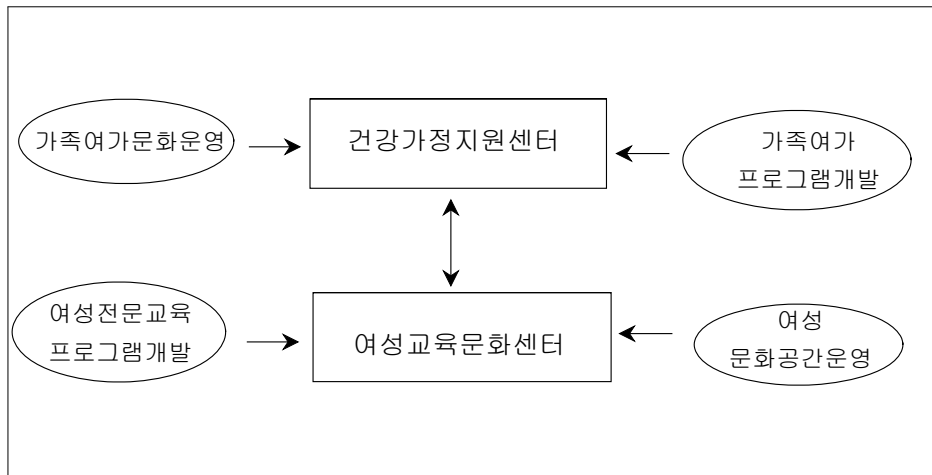
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취미 위주의 교육으로 취미 위주의 교육에서 다양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문화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건강정지원센터가 출산 및 보육 등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내는 토대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주5일 근무의 보편화에 따라 여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다양한 놀이문화가 개발·보급되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여가생활에 대한 위축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빈곤 계층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어 심리적인 소외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다양한 놀이문화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 및 여가 생활의 확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교육, 보건, 복지 등 환경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지도사, 가정보육사, 문화생태체험지도사. 전문간병인, 동화구연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를 지역복지지원서비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12> 문화·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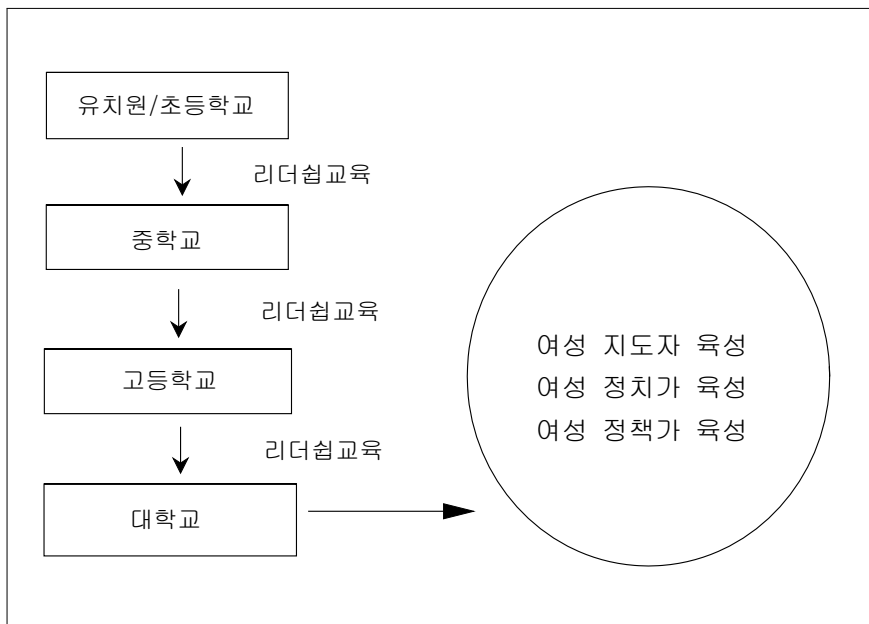
### 3) 정치·경제·사회 부문

신세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이 개발되어야 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취업프

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과정이 34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국제비즈니스전문가, IT마스터, 날염디자이너, 애완동물테크니션, 문화관광코디네이터 등이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도입은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 및 창업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영역의 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 등 각 시기별 정치 문화 학습 교실을 통해 여성 정치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접근 방법을 도입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체계화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13> 여성의 정치 훈련 단계



#### 4) 생활전반 여건 개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문들은 생활여건으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주여건의 변화이다. 현재 이러한 여건들의 변화를 위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이동하기 쉬운 버스노선의 확대 및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불리한 실정으로 여성복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여성들의 소규모 자조조직의 결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사회운동으로 삶의 여건을 변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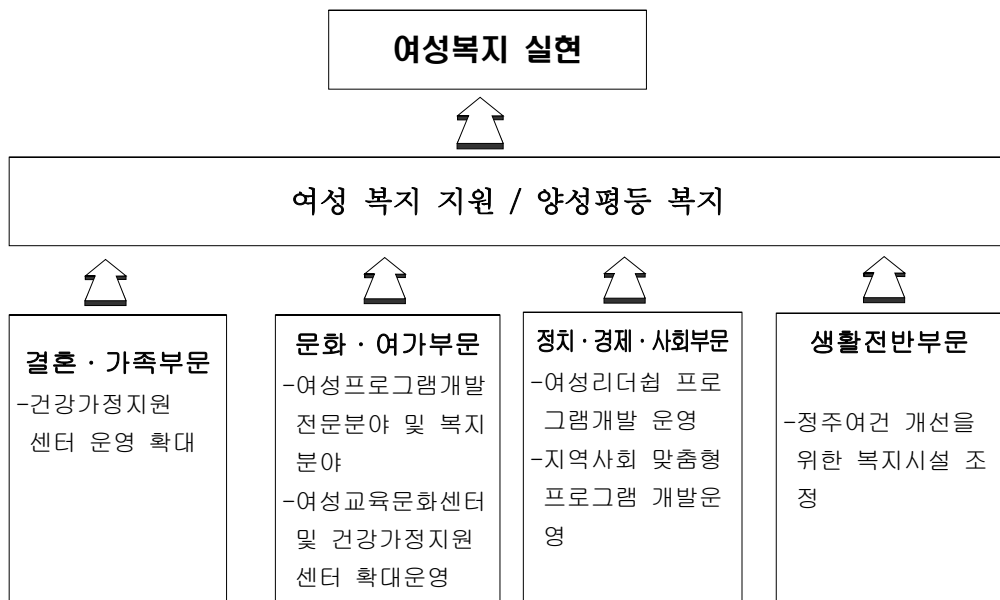
지금까지 신세대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어떤 정책이 발굴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은 다양한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성은 정책의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육지부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한 여성의식은 오히려 육지부와 차이가 존재하지만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 정책은 중앙을 중심으로 개발된 정책이 지역에 실시되어 왔다. 제주 지역은 이와 다른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농촌·어촌·산간·도시의 문화가 한꺼번에 혼재된 제주지역이야말로 여성정책의 다양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정책의 변화를 위한 도식은 우선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그림14> 여성복지 개념도



이 개념도를 통해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은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현재 각 기구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은 동일한 성격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확대된 여성정책이 집행되는 기반의 마련이 신세대 여성의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 및 집행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자순. 1994. “신세대 문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학회 1994 전기사회학대회자료집
- 권기대. 2001. “신세대 라이프스타일 분석”. 「정신전력학술논집」 Vol.No[2001].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제24권 제2호
- 오정진 외. 2002. 『여성정책 용어사전』. 여성부
- 장 보드리야르.1991. 『소비의 사회』,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 정태석(1996). “한국의 신세대:신세대의 자기표현”. 『현대사회』 1996봄/여름호. 서울:현대사회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_\_\_\_\_. 2004.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한국사회학회편. 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서울:나남출판사
- 한국여성개발원. 1986. 『여성과 성차별』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BSR20041214\\_3.PDF](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BSR20041214_3.PDF)
- 현용진. 1995. “X세대 문화론”. 현대사회문화연구원.
- 황상민 외.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서울:한국심리학회
- 시사저널. 1994. 5.
- 우먼타임스 218호 2005.6.14
- 연합뉴스 2005. 1. 14

#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설문조사표

ID			

<p>안녕하십니까?</p> <p>저희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제주여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응답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여성을 위한 정책 입안에 기여하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5년 10월</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b></p>							
본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영근 연구원 (☎ : 751-2166)							
응답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이름</td> <td style="width: 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td> <td></td> </tr> </table>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05년 10월 _____ 일							

응답요령 : 해당 난에 √ 표 또는 ○하시면 됩니다

가정 부문

1. 귀하는 현재 결혼하셨습니다?  
① 결혼 \_\_\_\_\_년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표시 ☞2번 항목으로)  
② 미혼 (☞4번 항목으로)
2. 귀하는 현재 몇 명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_\_\_\_\_남 \_\_\_\_\_녀(☞3번 항목으로)  
없음 \_\_\_\_\_(☞4번 항목으로)
3. 귀하는 현재 자녀 이외에 자녀를 더 낳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그렇다면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예정입니까? \_\_\_\_\_명  
② 아니오 (☞7번 항목으로)
4. 귀하는 결혼 후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낳지 않을 예정(☞8번 항목으로)  
② 결혼 후 상황을 봐서 낳을 수도 있음(☞5번 항목으로)  
③ 적당한 시기에 낳을 예정 (☞7번 항목으로)
5. 귀하는 어떤 상황이 자녀를 갖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몇 명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인 \_\_\_\_\_(적어주십시오)  
자녀수 \_\_\_\_\_명(☞7번 항목으로)
6. 귀하가 고려하는 자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명(적어주십시오)
7. 귀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터울과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의 수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어주십시오(☞9번 항목으로)

1명인 경우 첫 자녀 출산은	결혼	년 후	성별	남	녀
2명인 경우 첫 번째 자녀 출산		년 후	성별	남	녀
3명인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		년 후	성별	남	녀
4명인 경우 세 번째 자녀 출산		년 후	성별	남	녀

8. 귀하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비 부담이 심해서
- ②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 ③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 ④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 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이성 혹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직업                      ② 제주도 사람                      ③ 교육수준
- ④ 경제력                      ⑤ 성격                      ⑥ 집안
- ⑦ 종교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10.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기업으로부터 무엇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

- ① 보육비보조              ② 출산장려금                      ③ 보육시설확대
- ④ 보육도우미지원      ⑤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⑥ 의료비지원
- ⑦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문화 · 여가 부문

1. 귀하는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2번 항목으로)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균시간을 적어주십시오.

하루 평균 \_\_\_\_\_ 시간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② 아니오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_\_\_\_\_

2. 귀하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

- |                    |                     |
|--------------------|---------------------|
| ① 학습 및 업무 등의 정보수집  | ② 동호회 활동            |
| ③ 개인정보공개(미니홈피·블로그) | ④ 채팅·메신저 이용         |
| ⑤ 전자우편             | ⑥ 방송·연예정보           |
| ⑦ 게임               | ⑧ 쇼핑                |
| ⑨ 성인물사이트접속         | ⑩ 인터넷·뱅크 등전자거래      |
| ⑪ 사이버교육            | ⑫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3. 귀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3-1번 항목으로)

② 아니오 (☞3-2번 항목으로)

3-1.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종류	활동여부	주당 평균 소요 시간	한달 평균 지출 비용(원)	향후 고려 하는 활동
전문강좌(외국어 등)				
취미강좌(공예 등)				
등산				
걷기·마라톤				
운동시설이용				
TV시청				
인터넷사용				
문화활동 (공연·영화·연구·음악)				
기타(적어주십시오)				

3-2. 귀하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적어주십시오)

4. 귀하의 한달평균 독서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선호하는 도서부문은 \_\_\_\_\_ 한달평균 \_\_\_\_\_ 권

- ① 소설                                  ② 수필                                  ③ 시  
 ④ 주간지(시사 등)                      ⑤ 월간지(패션·IT 등)                  ⑥ 만화  
 ⑦ 전문서적(분야: \_\_\_\_\_)      ⑧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정치·경제·사회 부문**

1. 귀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도가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② 국제적인 기업 유치  
 ③ 영어교육                                      ④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제고



- ⑤ 시설이나 전문기관설립                      ⑥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2. 귀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사회구조에서 해소되어야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① 경제침체              | ② 생산구조의 편중   |
| ③ 환경오염              | ④ 무분별한 개발    |
| ⑤ 학연·지연·혈연 등 권당문화   | ⑥ 산남·산북의 갈등  |
| ⑦ 육지부와외의 소외감        | ⑧ 지역간 불균형 발전 |
| ⑨ 개인이기주의            | ⑩ 남성중심 문화    |
| ⑪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

3. 귀하는 제주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지역이나 상품명을 적어주십시오. 예 - 섬지코지, 감귤 등)

4. 다음은 제주도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가장 일치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 ① 마음이 넓다  | ② 찼찼하다    | ③ 무뚝뚝하다             |
| ④ 부지런하다   | ⑤ 성실하다    | ⑥ 알뜰하다              |
| ⑦ 검소하다    | ⑧ 성격이 급하다 | ⑨ 성격이 느리다           |
| ⑩ 착하다     | ⑪ 순박하다    | ⑫ 마음이 좁다            |
| ⑬ 폐쇄적이다   | ⑭ 개방적이다   | ⑮ 독선적이다             |
| ⑯ 자기방어적이다 | ⑰ 단순하다    | ⑱ 폭력적이다             |
| ⑲ 과격하다    | ⑳ 소심하다    | ㉑ 기타 _____ (적어주십시오) |

5. 귀하는 제주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5-1번 항목으로)

② 아니오 (☞5-1번 항목으로)

5-1. 그렇다면 제주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저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의 능력**이 적당/부족하기 때문
- ②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지지가 높기/낮기 때문에
- ③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정당**의 지지가 높기/낮기 때문에
- ④ 여성정치인에 대한 **사회·문화** 수준이 높기/낮기 때문에
- ⑤ 여성정치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높기/낮기 때문에
- ⑥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하기/약하기 때문에
- ⑦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6. 귀하는 제주도에 있어 여성 취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에 따른 노동시장의 협소
- ② 취업을 위한 교육 부족
- ③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 ④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기회편중
- ⑤ 취업을 위한 기회부족
- ⑥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7. 귀하는 제주도에 있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 산업구조 편중
- ② 전문직 진출을 위한 교육 부족
- ③ 전문직 진출을 위한 정보부족
- ④ 전문직종에 있어 남성에게 기회편중
- ⑤ 기타 \_\_\_\_\_ (적어 주십시오)

8. 귀하는 제주도에 있어 여성의 취업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의 산업구조 재개편
- ②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 ③ 취업 정보에 대한 공개
- ④ 여성취업자에 대한 일정비율(할당제형식 등)제도 도입
- ⑤ 취업에 대한 여성의식 변화

- ⑥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의식변화
- ⑦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9. 귀하의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항목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_\_\_\_\_

- ① 학업성적                      ② 진학                              ③ 취업
- ④ 가족간의 갈등              ⑤ 친척간의 갈등              ⑥ 친구와의 갈등
- ⑦ 외모                              ⑧ 성문제                          ⑨ 경제력(용돈/월급 등)
- ⑩ 건강                              ⑪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 다음은 제주도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	만족하지못한다	매우 불만족이다
사회 의식 부문	⑤	④	③	②	①
교육 시설 및 수준	⑤	④	③	②	①
문화 시설 및 수준	⑤	④	③	②	①
환경 시설 및 수준	⑤	④	③	②	①
의료·보건 시설 및 수준	⑤	④	③	②	①
전반적인 생활수준	⑤	④	③	②	①

▣ 다음 제주도 일반적인 의식에 대한 조사입니다. 해당 항목에 √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제주도의 경제수준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제주도 여성은 육지부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⑤	④	③	②	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현재 여성 정치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⑤	④	③	②	①
기회가 된다면 지역과 사회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학교 교육은 양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남성의 군입대에 대하여 여성이 대체할 활동이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중중재산을 여자에게 나누어주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⑤	④	③	②	①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편/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집안에는 반드시 아들이 꼭 있어야한다.	⑤	④	③	②	①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관계도 가능하다.	⑤	④	③	②	①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⑤	④	③	②	①

일반적인 특성

1. 다음은 귀하와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칸에 기입하여주시시오.

	연령	생존여부	교육정도
부	세		
모	세		
본인	세		

2. 귀하는 몇 형제 중 몇째이십니까?      남      녀중      째 딸

3. 귀하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있다 \_\_\_\_\_ (☞3-1번 항목으로)

없다 앞으로 취업 희망분야 \_\_\_\_\_ (☞4번 항목으로)

① 사무직	② 상담직	③ IT/컴퓨터직종
④ 교육	⑤ 서비스직	⑥ 영업직
⑦ 생산/단순직	⑧ 특수/전문직	
⑨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3-1. 현재 고용상태는 어떠합니까?

- |            |                     |
|------------|---------------------|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기간제,시간제)     |
| ③ 정규직+비정규직 | ④ 기타 _____(적어 주십시오) |

3-2. 근무 연한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정규직 (현직장) \_\_\_\_\_년 동안 근무  
비정규직 \_\_\_\_\_년 동안 근무

4. 귀하의 월평균 소득(용돈포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해주시오.

용돈	(본인)	_____만원/	
근로소득	(본인)	_____만원/(남편)	(만원)
기타소득(이자, 임대료 등)	(본인)	_____만원/(남편)	(만원)

5.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_\_\_\_\_시 \_\_\_\_\_동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공동연구자	김혜연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인 쇄 일 2005. 12

발 행 일 2005. 12

발 행 인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재승

ISBN 89-6010-000-5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